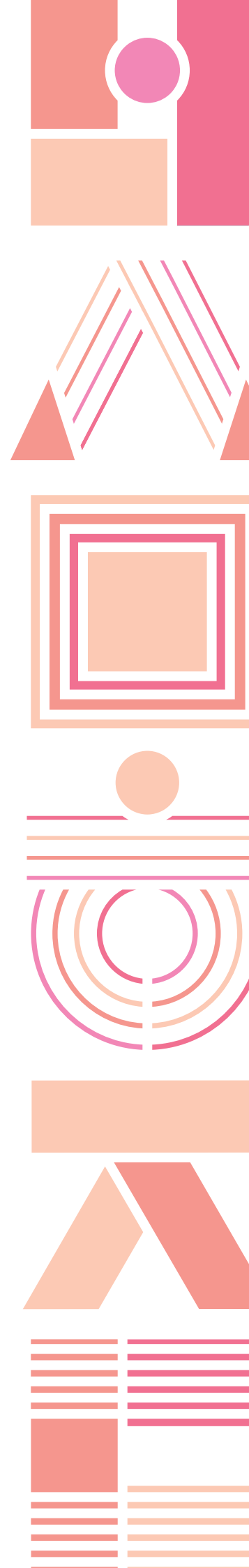


# 미래산업 기반 부산문화재단 정책 방향성 기본 구상 연구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부산문화재단의 대응 전략



---

연구기획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	조 정 윤(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연구보조	박 선 미(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석사과정)
연구지원	김 수 정(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

# 미래산업 기반 부산문화재단 정책 방향성 기본 구상 연구

##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부산문화재단의 대응 전략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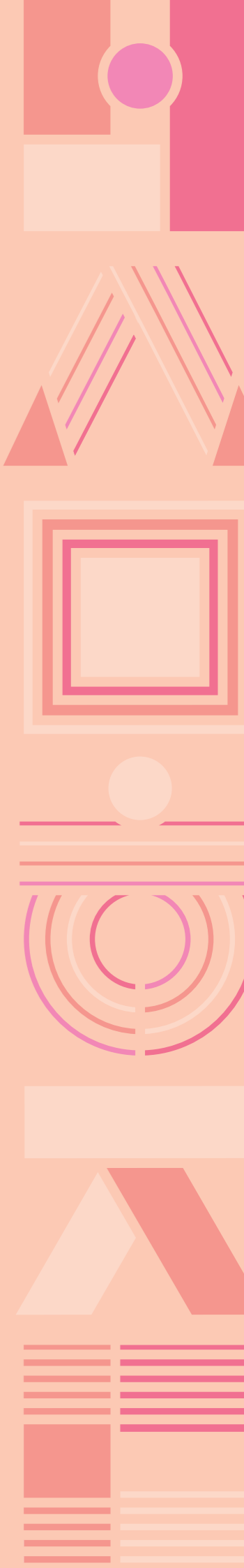
<b>I. 포스트 코로나, 부산문화재단 정책 방향성</b>	<b>07</b>
1) 여건분석	08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문화재단 운영 변화	08
· 코로나19, 지역문화재단 5RE 전략으로부터 시작하자	09
· 공적지원의 관점에서 문화정책이 시대와 함께 변화	09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과 문화예술	10
· 미국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산, 애드보커시 활동	10
·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하는 컨트롤 타워, 지역문화재단	11
· 지역문화재단, 예술에서 문화로 영역 확장 필요	12
·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산을 위한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13
·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부산문화재단 전략 계획	14
· 광역문화재단의 정책기능	16
· 지역사회-기업-문화재단-예술인 지역 내 상생협력 네트워크 필요	16
· 선별 지원에 의한 문화예술 생태계 선순환 구조 마련	17
· 문화권역의 문화예술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애드보커시 강화	17
· 4차 산업과 함께 문화예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전략 구상	18
<b>II. 광역문화재단의 새로운 문화예술정책 전환</b>	<b>19</b>
1) 들어가며	20
2)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20
3) 새로운 예술장르, 비대면 문화예술	22
4) 문화예술기관의 ICT 리터러시 향상	23
5)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전환 및 문화생태계 지원	24
6) 광역문화재단, 내부의 자성적 혁신으로부터 시작하자	26

<b>III. 문화분권 및 문화자치 대응 방안</b>	<b>27</b>
1) 들어가며	28
2) 법에 보장된 우리의 문화권리	28
3) 문화의 격차(格差)가 아닌 문화권(文化權)의 격차(隔差)	30
4) 통계가 보여주는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문화접근성 향상	31
5) 통계에 가려진 문화정책 수월성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格差)	34
6) 누리지 못하는 문화적 권리	34
7)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해외의 정책사례	37
8) 정책 공론화 이슈	38
9) 문화권(文化圈)의 문화권(文化權)을 위한 국가 책무의 재확인을 바라며	40
<b>IV. 부울경 메가시티 협력 방안</b>	<b>41</b>
1) 부울경 지역문화재단 협력 네트워크 결성	42
2) 부울경 네트워크 기반 협력 사례	42
3) 부울경 네트워크 기반 협력 가능성 확대	43
4) 부울경 정책 협의체의 방향성	45
5) 부울경 정책네트워크 활발한 교류를 기대하며	48
<b>V. 2030 엑스포 대응,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b>	<b>49</b>
1) 문화 협력 위한 아시아 문화연대 조직	50
2) 부산 자매우호도시와의 문화교류	52
3) 문화교류를 통한 한일 관계 회복	54
4) 동남권 메가시티와 연계	56

<b>VI. 비대면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b> .....	<b>61</b>
1)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 .....	62
2) 부산문화재단 대응 방안 .....	68
<b>VII. 부산형 메세나 활성화 방안</b> .....	<b>69</b>
요약 I .....	70
요약 II .....	71
1) 부산형 메세나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배경 .....	72
2) 성과와 한계 .....	74
3) 부산형 메세나 추진 전략 .....	77
4) 주요 과제 .....	79
5) 선결 과제 .....	89
<b>참고문헌</b> .....	<b>91</b>

# I . 포스트 코로나, 부산문화재단 정책 방향성

1) 여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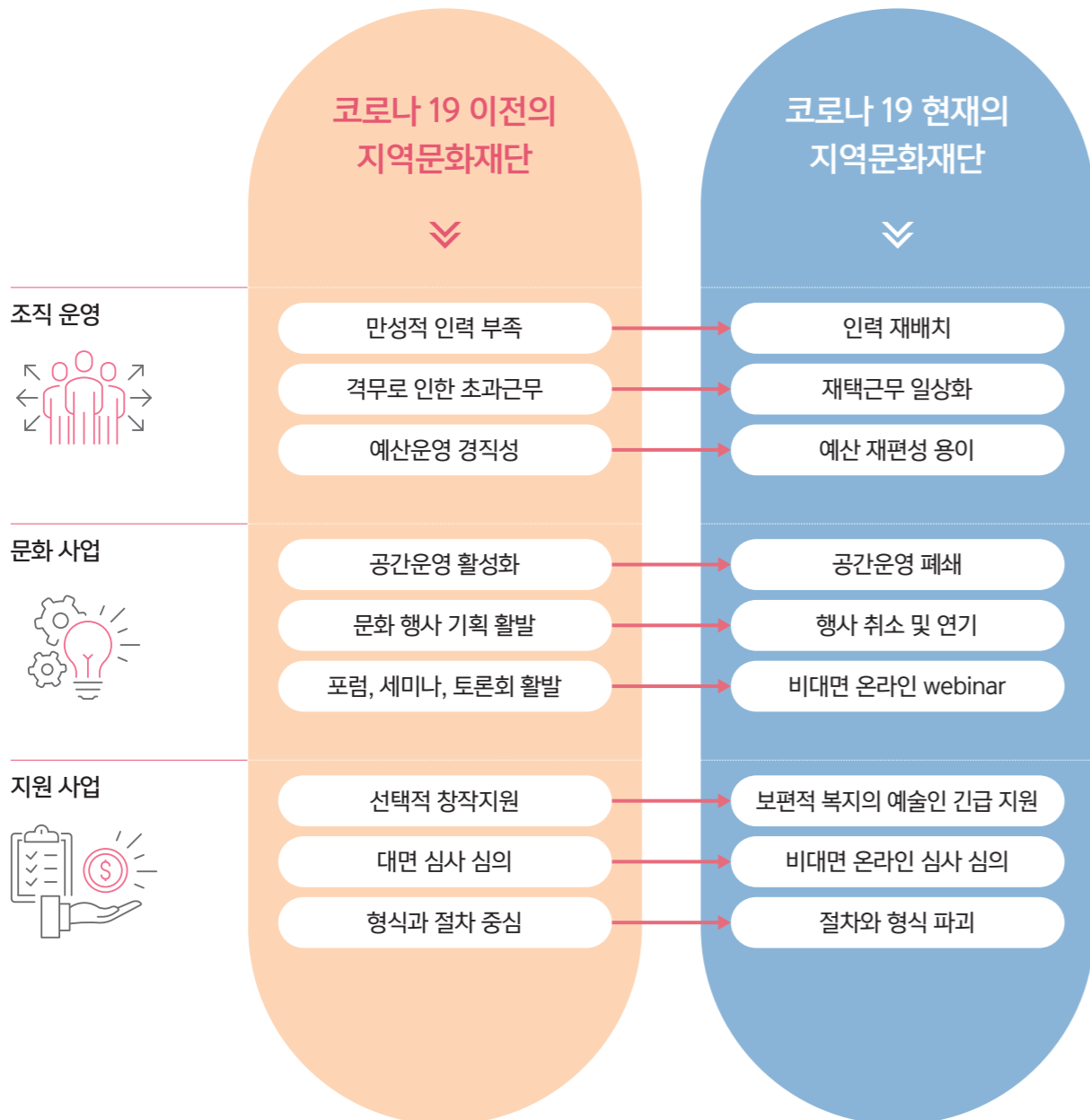


# I 포스트 코로나, 부산문화재단 정책 방향성

## 1) 여건 분석

###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문화재단 운영 변화

- 코로나 19는 문화재단의 조직운영, 문화사업, 지원사업 등 전대미문의 변화를 초래, 변화에 대한 문화재단의 대응 역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코로나 19 이전과 현재의 지역문화재단 변화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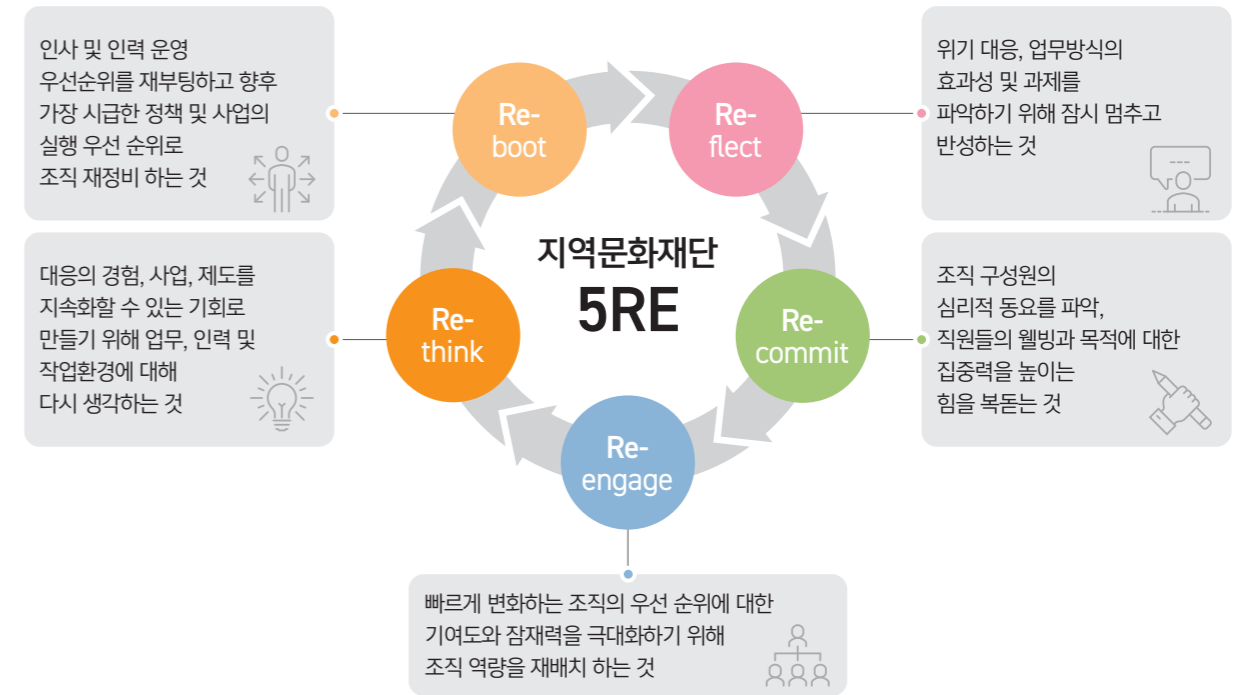


### 코로나 19, 지역문화재단 5RE 전략으로부터 시작하자

- 코로나 19, World Economic Forum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접근 5가지 전략 제시

\* 출처 :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9/deloitte-business-recovery-actions-covid-19/>

- 지역문화재단 역시 WEF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바탕으로 정책과 사업의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공적지원의 관점에서 문화정책이 시대와 함께 변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과 문화예술

[ SDGs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 17개 최대 공동 목표 ]



17가지 목표 중 문화 해당 코드(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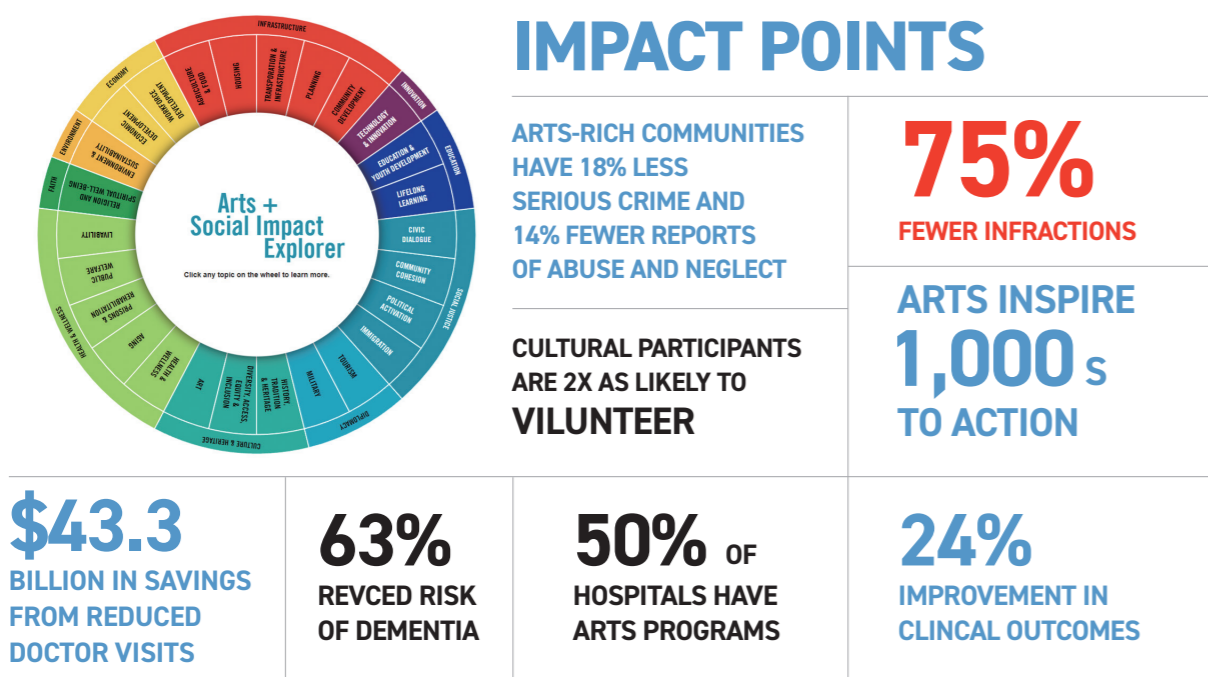
빈곤퇴치(1), 건강과 웰빙(3), 양질의 교육(4), 성평등(5),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8),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9), 불평등 완화(10),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11), 지속가능한 소비(12), 기후변화대응(13), 평화, 정의와 제도(16), 파트너십(17)

EU의 Culture in SDGs



미국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산, 애드보커시 활동

[ Americans for the arts, "Arts+Social Impact Explore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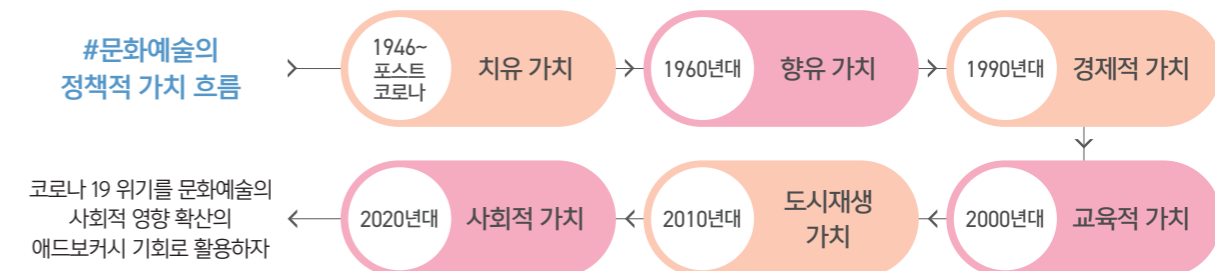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하는 컨트롤 타워, 지역문화재단

[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문화정책은 사회정책이다**

- 문화예술 지원의 당위성과 예술의 존재론적 의미를 사회적 합의로 발전
- 공적재원 활용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재생에 중요한 역할 담당
- 사회 자본 증대, 커뮤니티 재건과 발전, 사회 변화, 인적 자본의 발달 등 예술의 긍정적 영향 제시



**지역문화재단**

2차대전 후 전쟁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영국의 arts council이 설립된 것 처럼, 포스트 코로나 19는 다시한번 '치유의 문화정책적 가치'를 통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하는 애드보커시 활동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할 것임

[ 문화정책은 사회정책이자 도시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

**도시정책의 중심에 서야 할 문화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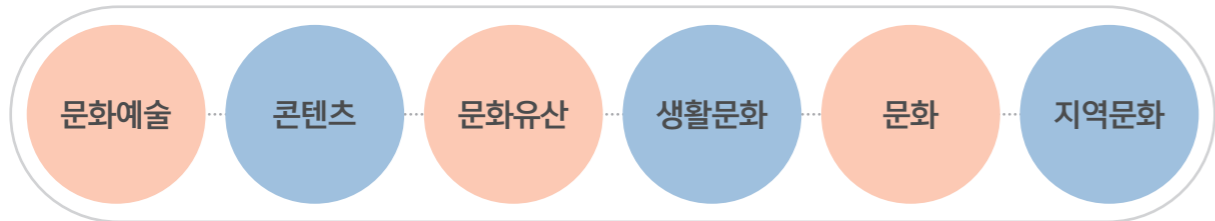
- 오늘날 전세계 문화정책의 과제는 예술작품의 창작지원과 문화향유라는 좁은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갖춘 내용을 포함하여, 동시에 도시재생 등 공공성과의 연계가 기본이다.
- 따라서 모든 정책영역이 문화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예술작품의 창조와 감상 기회 제공은 문화정책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	예술	정책
도시정책 : 도심부 활성화 정책 / 지역커뮤니티 정책 / 산업정책 / 교육 복지		
지금까지	현재	앞으로
문화시설 정비 / 감상사업 / 시민문화단체 지원 / 예술가 지원 / 청년, 신진 예술가 육성	도심부 활성화 정책 / 마을만들기와 문화예술정책 연계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으로서 문화예술정책

- 문화정책과 타 분야 정책과 관계 횡단적 정책을 통해 상승효과 기대
- 다양한 문화 접촉을 토대로 한 타 분야(산업, 교육, 의료, 복지 등)와 교류
- 도시계획과 협력한 행정과 도시 디자인에 기여
- 문화콘텐츠의 융복합에 따른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문화의 영향력 확산 등
- '정책의 관계 횡단적' 시점을 둔 경향은 전세계 도시 문화 비전 및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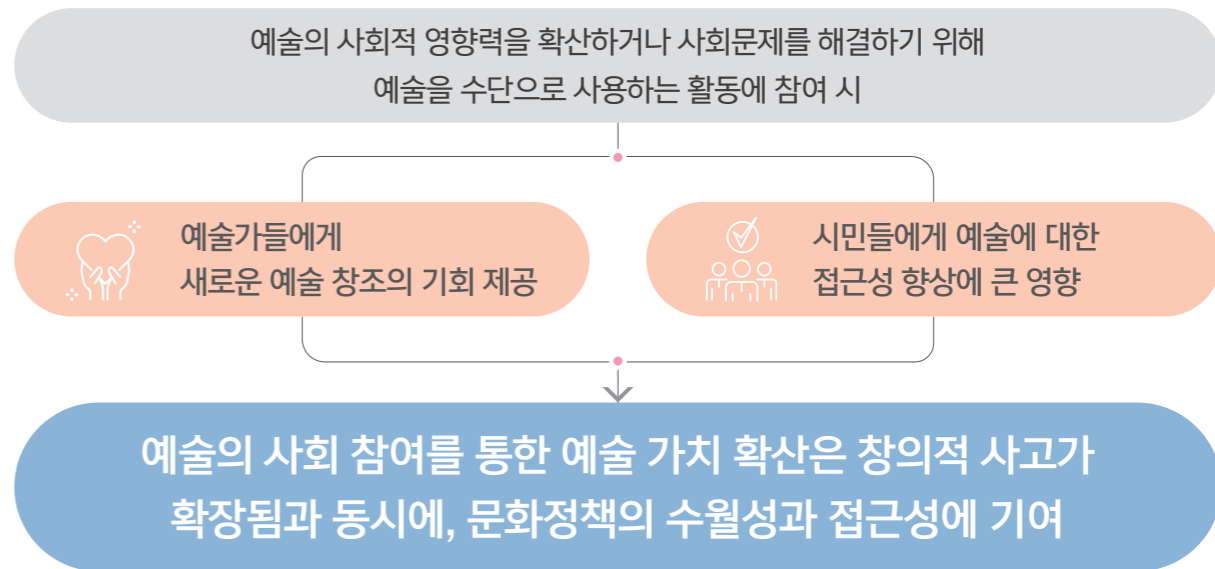
지역문화재단, 예술에서 문화로 영역 확장 필요

[ 코로나 19 예술의 위기를 지역에서는 문화의 가치와 영향으로 복원해야 한다 ]



<p><b>문화</b></p> <p>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p>	<p><b>문화예술</b></p> <p>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p> <p><b>문화산업</b>: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 제작, 공연, 전시,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p>
<p><b>지역문화</b></p> <p>[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p> <p><b>생활문화</b>: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p>	<p><b>콘텐츠</b></p> <p>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p> <p><b>콘텐츠 산업</b>: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제작, 유통 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p>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산을 위한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 1**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 설정**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목표의식으로 시작하여 지속가능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조직 구성이 필요합니다.


- 2**

**참여를 넘어 작품의 질적 향상에 도달**

시민을 단순 참여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인식하여 협업하고, 예술가는 작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시도를 해야 합니다.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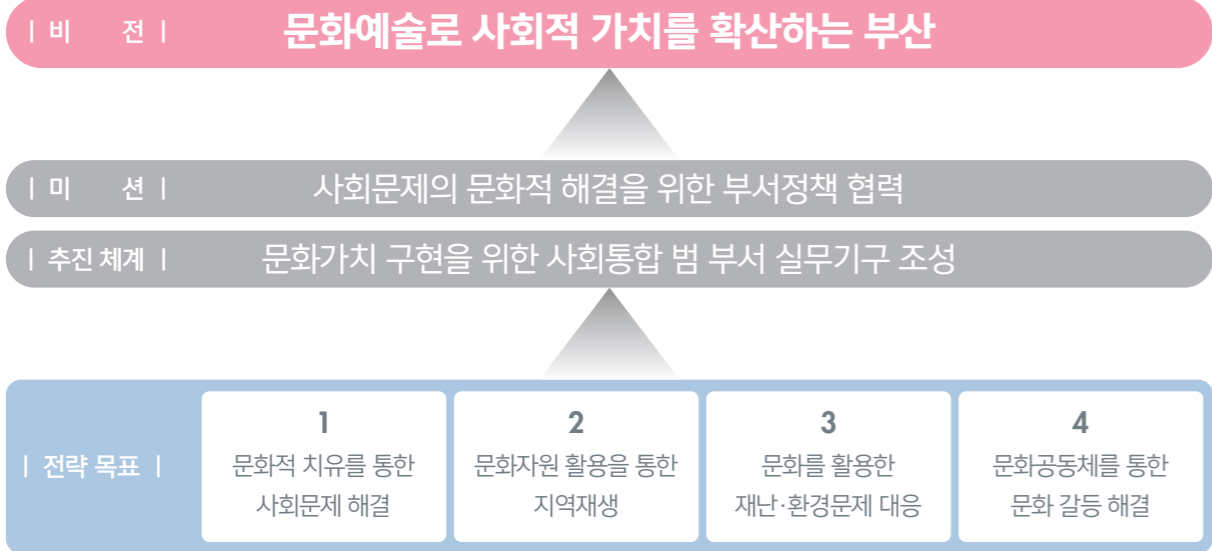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 확장**

지역 사회 각 분야와 협력, 그리고 협업을 통해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국제적 연대의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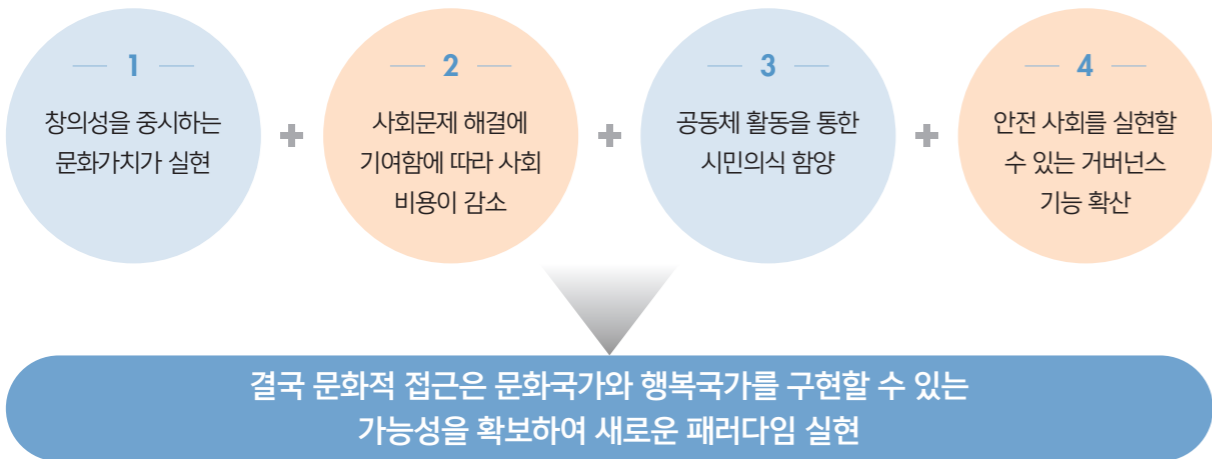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부산문화재단 전략 계획



[ 부산 내에서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을 위해 모든 부처 간 실행 체계를 확립하였을 때 기대되는 효과 ]



[ ART MATTERS ]

- 

**건강과 치유**

**2H(Health&Healing) 캠페인**

  - 문화예술은 시민 건강을 증진
  - 코로나 19 우울증 치유에 기여하여 시민 삶의 웰빙 추구
- 

**범죄 예방**

**문화예술 CEPTED**

  - 범죄율 전국 1위, 부산 문화예술을 통한 범죄예방
  - 환경 설계 교정시설 ·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 

**고령화 대응**

**삶의 활력 ▲ 의욕 저하 ▼**

  - 고령화 지수 전국 광역시도 1위, 부산 문화예술로 고령인구의 삶에 영향
  - 예술활동으로 치매 예방
- 

**사회적 고립 예방**

**부산 사회 특화 문제 완화**

  - 광역시·도 자살 지수 비교 3위, 1인 가구 전체 가구 중 20% 육박
  - 고독사, 자살 등 사회적 문제 완화
- 

**환경문제 대응**

**바다와 환경을 지키는 예술**

  - 미세먼지 평균 농도 WHO, 2.2배 해양 쓰레기 문제 심화
  - 업사이클 아트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
- 

**포용과 갈등해결**

**사회 포섭 위한 문화 다양성**

  - 차별과 배제에서 차이를 인정하여 세대간, 계층간 갈등 완화
  - 예술이 이끄는 사회 통합의 포용 도시, 부산
- 

**지역 공동체 회복**

**문화재생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역할 확대 사회
  - 인적 자본 중대 커뮤니티 아트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



광역문화재단의 정책기능

[ 지역 문화정책 컨트롤 타워 ]

<p><b>▶ 정책 기획 및 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의사 결정(decision making) 관점</li> <li>- 정책협력 네트워크(정책협의회) 운영</li> <li>- 행정-재단-예술가-시민 이해관계자 조정</li> <li>- 사업, 제도, 전략의 기획 조정</li> </ul> <p>#Planning #Strategy #Decision #Network</p>	<p><b>▶ 정책 제언 및 자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지자체 대상 법제화에 관한 제언</li> <li>- 정책 분과별 자문회의 운영</li> <li>- 하향식 정책 의견 수렴 및 공론화</li> <li>- 정책 이슈 공론화 및 애드보커시</li> </ul> <p>#Advice #Issue #Proposal #Advocacy</p>
<p><b>▶ 정책 연구조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정책 이슈 연구 조사</li> <li>- 지역문화자원 실태조사 및 아카이브</li> <li>- 각종 문화진흥계획 수립 위한 데이터 수집</li> <li>- 문화정책 동향 보고서</li> </ul> <p>#Research #Data #Report #Archive</p>	<p><b>▶ 정책 사업 개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과 사업 일원화</li> <li>- 연구조사에 기반한 사업 인큐베이팅</li> <li>- 데이터, 지표 분석 통한 맞춤형 문화사업</li> <li>- 정책 평가 환류 체계</li> </ul> <p>#Development #Incubating #PDCA</p>

지역사회-기업-문화재단-예술인 지역 내 상생협력 네트워크 필요

우리는 과연 문화예술 옹호, 후원과 상생협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상생협력 네트워크** 기업-문화재단-예술인이 문화예술후원을 시혜와 수혜의 관점이 아닌 상생-협력의 관계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파트너십을 말합니다.

<p><b>문화자원의 공유</b></p> <p>기업-재단-예술인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창의적으로 공유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간공유 = 창작공간</li> <li>2 예술인의 창의적 일자리</li> <li>3 기업의 경영 노하우 지원</li> </ol>	<p><b>협력제휴 네트워크</b></p> <p>기업-재단-예술인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협력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공헌 공동 캠페인</li> <li>2 사회문제 해결 협업 프로젝트</li> <li>3 기업-문화기관 공동 기획</li> </ol>	<p><b>포용과 나눔의 문화</b></p> <p>기업-재단-예술인은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선도합니다.</p> <p>개인 기부</p> <p>포용과 나눔의 부산</p>	<p><b>혁신과 창의의 메세나</b></p> <p>기업-재단은 예술인의 창의성 지원으로 지역사회를 혁신합니다.</p> <p>기업이미지 개선 혁신과 창의 생활속 문화</p>
--	--	---	--

선별 지원에 의한 문화예술 생태계 선순환 구조 마련

<p><b>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분리를 통한 맞춤형 지역문화예술지원 제도 도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적 수월성(excellence)의 창작지원과 접근성(accessibility) 향상의 생활예술 활성화라는 지역 선순환 체계 구축</li> <li>☑ 지역문화재단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간 업무 공유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예술인 복지 정책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양 필요</li> <li>- '전업 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의 활동증명 체계적 관리</li> </ul> </li> </ul>	<p><b>지역 예술 생태계 유지를 위한 민간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 작품을 지원하는 연관 산업분야의 위기 대응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기획사, 무대업체, 홍보 대행업체 등 관련 분야 산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li> <li>* 아트 카운슬의 Benevolent Funds: 긴급 기금이 커버하지 못한 창조산업 종사자를 위한 개별 지원(£ 4 million)</li> </ul> </li> <li>☑ 예술 생태계 고용 유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문예회관 중심으로 용역 스태프 지원</li> <li>* 영국 맨체스터 로리센터는 예산 조정을 통해 극장의 용역 스태프를 위한 긴급 지원 실시</li> </ul> </li> </ul>	<p><b>데이터에 근거한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예술지원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 선택적 예술인 복지, 맞춤형 경력관리 지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예술지원 자료 및 축적된 각종 지원 시스템 데이터 종합적 관리</li> </ul> </li> <li>☑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제정됨(2020.6.9)에 따른 과학적 예술지원 행정</li> </ul> </li> </ul>
---	--	--

문화권역의 문화예술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애드보커시 강화

[ 부울경 문화예술 상생협력 네트워크 사업 제안 ]

**문화예술 사회적 가치 확산**

<p><b>고독사 완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고립감 심한 1인 가구 대상</li> <li>· 기업, 재단, 정신보건기관 협약 통한 문화예술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 제공</li> </ul>	<p><b>고령자 치매 회상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 환자 대상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li> <li>· 예술가 주도의 기억 회상법</li> <li>· 고령자의 창의적 표현 지원</li> </ul>
<p><b>예술 치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스피탈 아트 공동 추진</li> <li>· 국가재난 및 사고로 인한 우울증 예술 치유</li> <li>· 포스트 코로나 힐링 콘서트 공동개최</li> </ul>	<p><b>해양 오염 완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 오염 문제해결 위한 플로깅</li> <li>· 해양 쓰레기 재활용 통한 업사이클링 아트</li> <li>· 부울경 공동사업으로 전국 확대</li> </ul>

### 4차 산업과 함께 문화예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전략 구상

#### 과학 기술과 예술 융합 기반의 새로운 형식 출현

- 코로나 19 이전부터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초연결화, 지능화, 융합화 트렌드가 나타남
- AI 예술인 출현 및 협업 뉴 미디어 아트 등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활성화 되는 추세였음



**융복합**  
장르 형식 파괴  
새로운 예술



**ICT 활용**  
IOT 빅데이터  
3D 프린팅 시



**플랫폼**  
공유와 소통  
다양한 가치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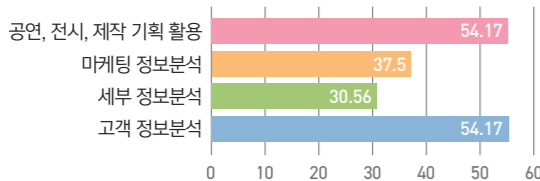
\*클라우드 수반 : 초연결 사회 도래에 따라 인간은 새로운 문화적 르네상스를 맞이할 것이라 예견

#### 정책 애드보커시로서의 홍보 기능 강화

- 1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전사적 홍보
- 2 재단 정책 및 사업의 대시민 옹호 활동 (애드보커시)
- 3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회공헌 활동)

#### [ 맞춤형 문화행사 기획 ]

- 문화소비자 분석을 통한 관객 니즈에 맞춘 행사 기획
- 시민들의 문화니즈 정보 분석 통한 맞춤형 문화기획



\* 출처 : 문화예술 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2014, 정광열)

#### [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

- 맞춤형 문화예술 지원 사업 가능 확대로 수혜자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

#####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술인 지원

-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 가능
- 문화예술인 복지사업 효율화
- 맞춤형 지원 통한 예술인 경력관리 지원

##### 2. 지원 사업의 책임성, 투명성 강화

- 지원금 중복, 부정 수령 방지
- 정산 및 행정절차 간소화 가능

#### 4차 산업 수용을 중심으로 본 지역문화재단의 과제

- 지역 문화예술 비대면 종합 정책 수립
  - 비대면 온라인 예술 서비스의 지역 실정에 맞는 적용 및 지역 특수 정책 마련
  - 문화예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지원 및 예술과 콘텐츠의 협업 체계 지원
- 문화예술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 지역의 문화적 기억에 대한 방송, 영상 아카이빙 통한 빅데이터 창고 구축
  - SNS 소셜 플랫폼, 각종 운영 플랫폼 활용현황에 대한 분석 통한 사업 기획
- 온라인 문화예술 작품 유통 서비스 개선
  - 콘텐츠의 유료화 혹은 지역문화예술 후원을 위한 기부 플랫폼 연동
  - #Pay it Forward London - Mayor of London
  - 온라인 스트리밍 전략 체계 마련 (SNS 비정형 빅데이터 활용)

#### [ 문화예술 수혜자 체감 만족 ]

- 문화예술 수혜자의 접근경로, 결정과정 활용한 일체형 문화서비스 제공 가능



예매, 교통, 숙박, 관광, 쇼핑 등 일체형 서비스

#### [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 ]

-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을 확산하는 애드보커시의 도구로 작용



문화예술 빅데이터 통한 사회, 경제현상과 연관성 서비스 분석

## II. 광역문화재단의 새로운 문화예술정책 전환

- 1) 들어가며
- 2)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 3) 새로운 예술장르, 비대면 문화예술
- 4) 문화예술기관의 ICT 리터러시 향상
- 5)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전환 및 문화생태계 지원
- 6) 광역문화재단, 내부의 자성적 혁신으로부터 시작하자

## II 광역문화재단의 새로운 문화예술정책 전환

### 1) 들어가며

코로나 19와 함께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단어는 '사상초유'가 되어 버렸다.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 평소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용어들이 일상화가 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을 보여 준 사례도 있고, 오히려 기회를 위기로 만들어 버린 경우도 있다. 변화 관리, 체인지 매니지먼트(Change Management)<sup>1)</sup>의 수용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고 본다. 변화관리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 '위기의식의 전략적 활용'인데, 과연 광역문화재단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을 보여주었는가? 코로나 19와 같은 미증유의 위기일수록 광역문화재단은 민간영역의 마중물로 적극행정과 혁신을 통한 공공의 역할수행과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는가?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광역문화재단의 위기관리(risk management),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적극 행정, 전략적 대응의 관점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광역문화재단 역시 문화예술정책의 전환에 직면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새로운 예술장르로서의 비대면 문화예술 #문화예술기관의 ICT 리터러시 향상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전환 및 문화생태계 지원 #광역문화재단 자생적 혁신 등의 관점에서 문화예술의 정책적 화두를 던져보며, 광역문화재단 구성원 간 집단지성의 공론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해본다.

### 2)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문화예술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역할'이 명백해졌는데, 바로 문화예술을 통한 심리적 거리 좁히기이다. 문화예술이 가지는 힘이 바로 치유의 힘인데, 코로나 확산 시, 발코니 콘서트(이탈리아), 음악인들의 찾아가는 병원 콘서트(한국, BBC 소개), 음대생들의 온라인 졸업 콘서트(미국), '#TogetherAtHome Concert Series'는 문화예술의 힐링 및 치유의 가치를 잘 보여 주었다. 경기문화재단의 선도적인 대응 역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향후 광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심리적 거리 좁히기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기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그동안 힐링, 치유의 가치에 대한 정책적 담론이 형성되었다.<sup>2)</sup> 향후, 코로나 19가 안정이 되면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는 더욱 주목 받을 것이며, 공공지원의 정당성 또한 이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천편일률적 형식은 경계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치유의 내용과 대상'을 중심으로 한 문화사업 기획이 필요하다. 예컨대, 코로나 19로 인해 나타난 사회특화 문제인 '우울증', '가족 붕괴', '양극화', '세대 갈등' 등을 해결 하는데 문화예술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코로나 19는 문화예술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변화하는 문화정책의 흐름에서도 잘 나타난다. 문화정책의 가치흐름은 심미적 가치, 아름다움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었는데, 1990년대 들어 경제적 가치, 2000년대 들어서는 교육의 가치, 2010년대 들어서는 도시재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문화정책이 주로 논의 되어 왔다.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문화예술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담론과 애드보커시 활동이 문화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산의 강조는 자칫 창작자들에게 '예술의 수단화'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나타난 현상은 오히려 예술의 접근성은 물론 창의성과 수월성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sup>3)</sup>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활동들은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예술 창조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예술 접근성 향상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결국 예술의 사회 참여를 통한 예술의 가치 확산은 문화정책의 수월성과 접근성의 조화에 기여를 하게 된다. 이를 뒷받침 하듯 예술이 작품 창작과 감상 기회라는 좁은 영역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전 세계 문화정책이 증명해주고 있다. 즉, 예술은 사회적 갖춘 내용을 포함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도시재생 등 공공성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모든 정책영역이 문화예술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예술작품의 창작과 감상은 정책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문화예술정책이 타 분야 정책과 관계 횡단적 경향을 통해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문화 다양성에 기반한 국제교류사업, 도시계획과 협력 한 행정과 도시디자인, 영상 콘텐츠, ICT의 결합에 따른 창조산업의 육성 등 오늘날 문화예술정책에 관련된 영역은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 문화예술의 관계 횡단적 정책 확장성이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1)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Change Management"는 성공적인 변화 관리의 핵심 실행 포인트로 1. 과거 관행과의 단호한 결별, 2. 위기의식의 전략적 활용, 3.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에 주목, 4. 저항과의 싸움, 5. 과감한 행동과 진화론적 적응을 제시한다. (LG경제연구원 강진구, 2017.8.31.)

2) 미국의 문화정책을 분석해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역시 서울예술치유허브 프로그램 등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3)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책임연구 조정운)가 올해 발간한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조사연구]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 3) 새로운 예술장르, 비대면 문화예술

코로나 19로 문화예술이 가장 피해를 보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는 ICT와 실용적 접목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예술과 기술의 접목은 더 이상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다. 2015년 클라우드 슈밥이 제시한 개념인 4차산업 혁명과 함께, 과학 기술과 예술 융합 기반의 새로운 예술 형식이 출현하고 있다.<sup>4)</sup>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는 그동안 축적되어 온 다양한 실험과 시도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시기이다. 문화예술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sup>5)</sup>의 시대 혁신을 이끌어야 할 때가 바야흐로 도래한 것이다. 한편, 코로나 19는 문화예술의 위기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예술의 특성이 대면(contact)문화였는데 코로나 사태 후에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비대면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문화예술 분야가 가장 심각한 피해와 영향을 받는 와중에도 역설적으로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진행된 것이다. 문화예술의 특성인 '창의(creativity)'를 통해 어려운 시기 문화예술의 사회적 공헌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대면 예술이 공연예술의 근간이었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홈 콘서트 등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을 접하게 되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대면으로 복귀한 문화예술 생태계에서의 활동이든, 혹은 비대면 형식이 더욱 활성화되든 분명히 문화사적으로 새로운 창조영역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광역문화재단은 그동안 축적되어 온 다양한 연구조사 성과와 시도들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는 매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 하듯이, 문화예술의 속성 역시 새로운 것에 도전과 응전의 측면이 강하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아니 그 이유를 핑계로 시도해 보지 못했던 ICT와 결합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행위들이 문화예술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혁신을 이끌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따라서, 향후 문화정책의 화두는 문화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실험적 시도에 대한 지원책 강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광역문화재단은 온라인, 뉴미디어 지원 사업비의 지속적 확보를 통한 지역의 온라인·뉴미디어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비대면 온라인 뉴미디어의 데이터 창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한편, 4차산업 핵심기술(빅데이터·5G·AI 등)과 예술적 상상력을 융합하는 사업 활성화 역시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4차산업 핵심기술 사용의 가치를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라는 측면으로 설정하여 애드보커시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4) 문화예술기관의 ICT 리터러시 향상

광역문화재단 종사자들의 ICT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 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2020.6.9)에 따라 공공 문화예술기관 종사자들 역시 향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문화행정을 실시해야 한다.<sup>6)</sup> 특히,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는 광역문화재단은 관련 분야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직원들의 ICT, 빅데이터 관련 전문 지식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 지역문화 전반에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으나, 아쉽게도 저장만 할 뿐, 심지어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측정 및 수명관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수많은 데이터가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적 차원에서 전담 인력 배치 및 조직 규모의 확장을 고려하여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향후 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도 빅데이터 IT 지식, 통계학적 지식, 문화예술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 창의적인 직무능력이 특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구성원들 간 다양한 관련 학습 해커톤 모임을 지원하여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생태계 주체들에 의한 온라인 미디어 지식공유 플랫폼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정보 습득과 교류라는 동료 학습(peer learning)의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ICT 리터러시 향상은 구성원의 자발적 운영과 지식 공유야말로 그 어떠한 교육보다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역시 문화행정의 주요 이슈로 부각시켜야 할 시점이다. 특히,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법정 교육에 준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교육의 기회를 지역문화 민간 생태계에도 개방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역문화재단은 재단이 보유한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해 관련 교육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4)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4차 산업의 특징인 융복합, ICT 활용,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4차 산업의 창시자 클라우드 슈밥은 인간은 새로운 문화적 르네상스를 맞이할 것이라 예견하였다.

5)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플랫폼으로 구축, 활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轉換]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6) '데이터 기반 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 가공, 분석, 표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 5)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전환 및 문화생태계 지원

현장에서 우리는 긴급생계지원 대상 예술인들을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으로 분류한다. 예술활동을 평생 전업으로 하며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는 자들을 '전업예술인'이라 칭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업예술인들의 상황은 '가난한 예술인의 삶'이라는 정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신용 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를 위해 막노동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예술인들을 현장에서 심심찮게 목격하게 된다. 생계 자체가 곤란하다 보니 아쉽게도 생각보다 많은 전업예술인이 지역에서 사라져 가거나 그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점이다. 반면 전업예술인보다 양적으로 상당수를 차지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다. 이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예술 활동 이외의 직업에 평생 종사한 비전공자로 예술 활동은 개인의 기호재이다. 1인 창작활동의 대표적인 문학과 미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 전직 공무원, 경찰, 의회 의원, 교사, 사업가 출신으로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오랫동안 해 왔다. 퇴직 후 각종 문화예술 협회에 가입하여 작품 활동을 해 오고 있다. 가끔 몇 년에 한번 문화재단으로부터 창작지원금을 지원 받아 책을 출판하기도 하였고,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협회의 요청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활동증명까지 받아 놓았다. 연금 생활로 풍요로운 노후에 예술 활동은 삶의 질, 웰빙, 정신 건강 유지를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현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부류를 '생활예술인'이라 부른다. 지역 문화생태계에서 생활예술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생활문화 진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들의 양적 확대는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예술인 사회 안전망과 예술인 복지에 관련해서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보편적 예술인 긴급지원인가? 선택적 예술인 긴급지원인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단계별로는 전업예술인에 대한 선택적 복지로 우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업예술인 조건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도 시급하다. 가능하다면 전업예술인 중에서도 피해와 소득에 따른 선택적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분리 지원뿐만 아니라 장르별 선택적 복지 역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1인 창작 위주 장르와 다인 협력 창작 장르는 피해 규모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근원적으로는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분리를 통한 맞춤형 지역문화예술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예술적 수월성(excellence)의 창작지원과 접근성(accessibility) 향상의 생활예술 활성화라는 지역 선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예술인 복지와 지원을 통해 드러난 지역 문화재단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간 업무 공유 시스템 역시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향후, 지역 예술인 복지 정책 역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양하여 지역에서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의 활동증명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sup>7)</sup>

7) 출처 :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본 전문·생활예술인 분류의 과제(예술경영지원센터 웹진 452호\_2020.8.27) 발제자 원고 재 인용

결국 예술인 복지 정책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급기회 보장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예술인 복지정책의 핵심방향을 예술인의 권리보장 강화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공포(2021.09.24)된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특히, 지역 예술인의 활동들이 정당한 가치를 보상받고, 안전하게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환경적 보완이 필요하다. 광역문화재단 예술지원부서의 혁신과 사업 전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사실, 예술인 복지는 정책적으로 국가 사무이다. 지역에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하다. 이를 단순 사업으로 인식하여 광역문화재단에 '갑'과 '을'의 방식으로 위탁시키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전달체계를 통한 사업 실행은 다양한 사례에서 실패를 목격하였다. 실무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광역문화재단 간의 정책 협의회 가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각종 예술지원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택적 예술인 복지 실시에 대한 계획과 함께, 데이터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예술인 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지원은 예술인에 한정되는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 문화예술계 역시 전무후무한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의 절대적인 부분은 사실 공공 영역이라기보다는 민간 영역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오히려 공적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그동안 민간영역에서 창조산업을 이끌어 왔던 민간 문화예술단체, 기획사, 협력사, 무대업체, 홍보대행사 등이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공연예술만 하더라도 공연기획사, 무대업체, 홍보 대행업체 등 관련 분야 산업 종사자들이 비록 예술인은 아니지만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해외 공연 취소로 인해 막대한 계약금 손실의 피해를 입고 있는 대형 공연기획사, 공연이 중지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무대, 음향, 조명 스태프 등 그 피해를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광역문화재단의 창작지원 시스템에 민간 지역문화 생태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역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sup>8)</sup> 지역문화 생태계 차원에서 민관 위기대응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코로나 19와 같은 미증유의 위기일수록 민간영역의 마중물로 적극행정과 혁신을 통한 공공영역 역할과 대응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광역문화재단 역시 이러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전환 및 문화생태계 지원의 관점에 보조를 맞추어 각종 내부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우선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의 전략적 편성을 해야 한다. 또한, 긴급예술인 지원과 같이 소액 지원의 경우 정산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원금 중복 및 부정 수령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관리와 통제가 기반이 되는 보조금(subsidy) 지원에서 창의와 사회적 가치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grant) 위주의 신뢰 기반으로 전환하여 정산을 간소화하는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8) 영국 아트 카운슬의 코로나 긴급지원금은 문화예술 생태계 지원에 관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 6) 광역문화재단, 내부의 자성적 혁신으로부터 시작하자

문화예술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부여받고 있는 광역문화재단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 광역문화재단 내부의 자성적 혁신과제를 제안해 본다.

첫 번째 과제는 문화재단 근무 방식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는 뜻하지 않게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되었고, 시간 선택제 및 유연 근무제가 활성화되었다. 광역문화재단의 직무에 따른 재택근무의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문화예술정책의 전환에 대한 대응은 광역문화재단 구성원의 기여도, 난이도, 선호도, 격무도, 책임성 등의 평가기준을 통해 직무·직능 분석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구성원 간 갈등해결을 위한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 시스템 구축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구성원 간 소통부재, 세대갈등, 인사 갈등, 직급 체계 갈등, 가치관의 충돌 등 문화재단을 둘러싼 내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봉착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조직 차원의 전사적 대응이 필요하며, 사례와 정보 공유를 통하여 조직, 노사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재단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조직 운영 체계 구축이다. 광역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 문체부, 지자체, 의회를 중심으로 한 관계설정으로부터 지역 내 다양한 시민사회와의 협력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문화예술 정책의 관계 횡단적 경향을 고려한다면 향후 광역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는 바로 시민사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

네 번째 과제는 문화재단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과제이다. 광역문화재단에 대한 공공지원은 세금으로 조성되었기에 설명책임을 가진다. 즉, 재정운영의 책임성(accountability)이 강조되는 것이다. 또한, 광역문화재단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명성(transparency)'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재단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운영적, 재정적 건전함을 재단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게 제공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행정, 의회, 시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얻은 신뢰와 투명성은 결국 이들이 재단 옹호론자(advocator)가 되어 지역사회에 재단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III. 문화분권 및 문화자치 대응 방안

- 1) 들어가며
- 2) 법에 보장된 우리의 문화권리
- 3) 문화의 격차(格差)가 아닌 문화권(文化權)의 격차(隔差)
- 4) 통계가 보여주는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문화접근성 향상
- 5) 통계에 가려진 문화정책 수월성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格差)
- 6) 누리지 못하는 문화적 권리
- 7)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해외의 정책사례
- 8) 정책 공론화 이슈
- 9) 문화권(文化圈)의 문화권(文化權)을 위한 국가 책무의 재확인을 바라며

### Ⅲ 문화분권 및 문화자치 대응 방안

#### 1) 들어가며

문화분권 이슈를 지역에서 제기하면 중앙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냉담하다. 실상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거나, 지역의 요구를 다소 감성적 호소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정책 판단에 있어 특히 지역의 과열된 경쟁적 요구가 있을 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수도권 문화집중과 지역문화 격차 이슈 역시 지역의 민원 문제로 인식한다. 지역 간 과열된 경쟁을 핑계로 결국 국가는 대한민국의 중앙인 서울과 수도권에 '접근성', '효율성'이라는 행정 기준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는 사례를 그동안 늘 지켜보았다. 대다수의 국립 문화예술기관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이견희 미술관 건립을 둘러싼 논쟁 역시 그러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수도권 문화집중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 요구는 법에 보장된 문화권리라는 것을 법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나타난 수도권 문화집중의 심각성과 이로 인해 왜곡될 수 있는 국가 문화정책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으로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와 지역의 정책 공론화 이슈를 통해 문화기반 시설의 수도권 집중과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법에 보장된 우리의 문화권리

문화민주주의의 본질은 모두를 위한 문화(Kunst für alle), 즉 인간은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인 '문화권(文化權)'을 가진다는 것이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헌법]과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먼저 헌법 전문을 살펴보자. 우리 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이렇게 “문화 향유와 창작의 기회 균등” 측면이 헌법 전문에 명확히 강조되어 있다. 헌법 11조 역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문화관련 개별법인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은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국민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는 것”을 법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국민은 이렇게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문화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해 균형 잡힌 문화 발전,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기본법의 취지를 더욱 구체화 하고 있다. 동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을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를 명문화 하였다. 국가는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동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이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것'과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것'임을 국가의 책무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역시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며,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법제에 명시된 지역 간 격차 해소, 차별 배제와 평등한 문화권리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아래의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문화관련 법에 명시된 국민의 문화권리에 관한 조항

법률	조항
<p><b>문화기본법</b> [시행 2021. 9. 11.] [법률 제18379호, 2021. 8. 10., 일부개정]</p>	<p>-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p> <p>-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b>지역문화진흥법</b> [시행 2021. 6. 23.] [법률 제18165호, 2021. 5. 18., 일부개정]</p>	<p>-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p> <p>-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p> <p>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p> <p>7.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p>
<p><b>문화예술진흥법</b>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5호, 2020. 12. 8., 일부개정]</p>	<p>-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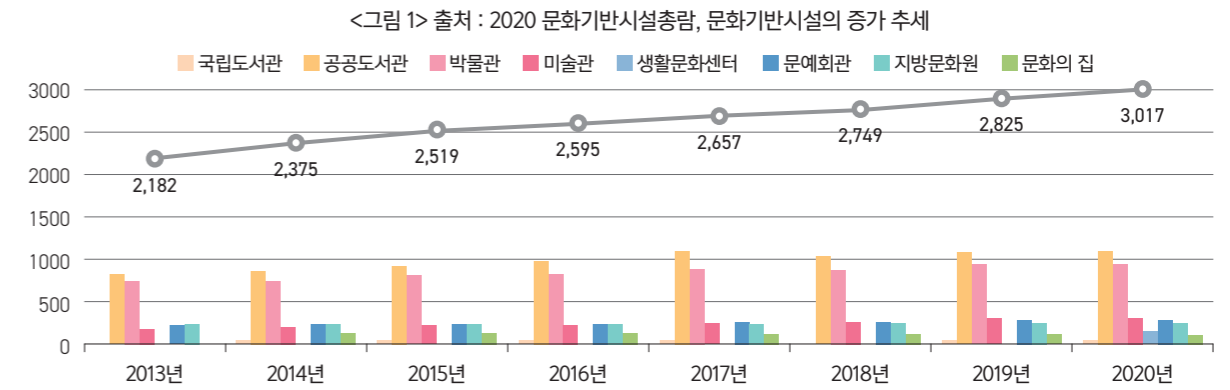
### 3) 문화의 격차(格差)가 아닌 문화권(文化權)의 격차(隔差)

사실, 문화기본법의 '문화'<sup>9)</sup>와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sup>10)</sup> 정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문화와 지역문화에는 '격차(格差)'라는 표현이 존재할 수 없다. 상대성, 다양성에 가치를 둔 '문화'와 지역 고유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문화'에는 근원적으로 선악 미추가 없어 '격차(格差)'라는 표현이 존재할 수 없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된 '문화예술'<sup>11)</sup>의 정의로 한정하면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권(文化權)에 초점을 맞추면 문화기반시설 인프라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격차(隔差)'가 엄연히 존재하며, 그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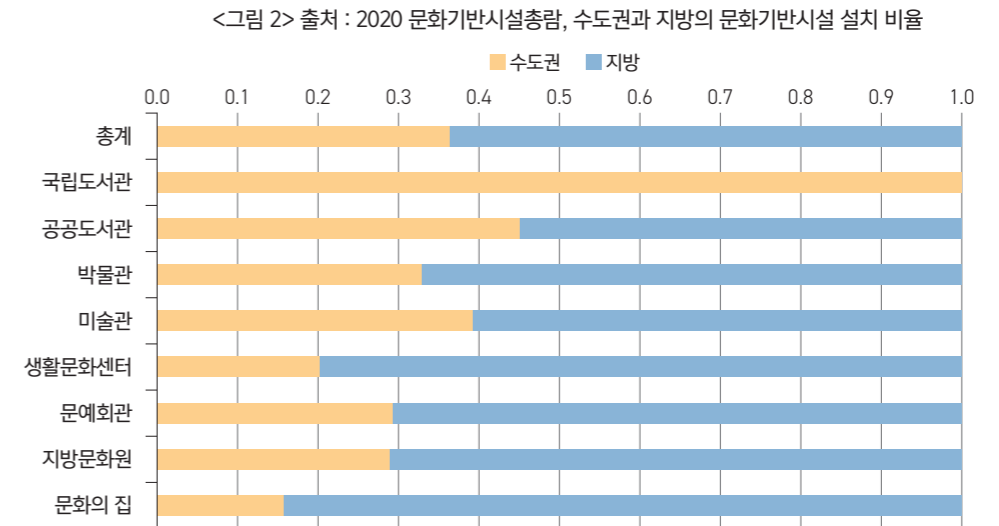
문체부에서 발표하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sup>12)</sup>이 공개되면 지역 언론은 '문화기반시설 수도권 집중 심화'라는 기사를 연일 쏟아낸다. 데이터가 뒷받침을 하 듯 부산의 경우,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기반시설의 숫자만 봐도 제2의 도시 치고는 초라하다. 이웃 경남과 울산 역시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인력, 이용현황, 소장자료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다. 현재 세 지자체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가 완성되어도 수도권에 비해 동남권의 문화기반시설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 즉,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부울경 메가시티가 탄생해도 문화권(文化圈)의 문화권(文化權)이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 4) 통계가 보여주는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문화접근성 향상

아래의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의 통계가 보여 주듯이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3,017개소의 문화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공공도서관을 필두로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주요 문화기반시설이 매년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아래의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기반시설 설치 비율만 보면 수도권 3개 시·도에 문화시설의 36.2%가 분포해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별 인구 백만 명 당 시설수를 살펴보면 수도권 42개, 지방 74개 등으로 지역별 인구대비 문화시설은 지방에 더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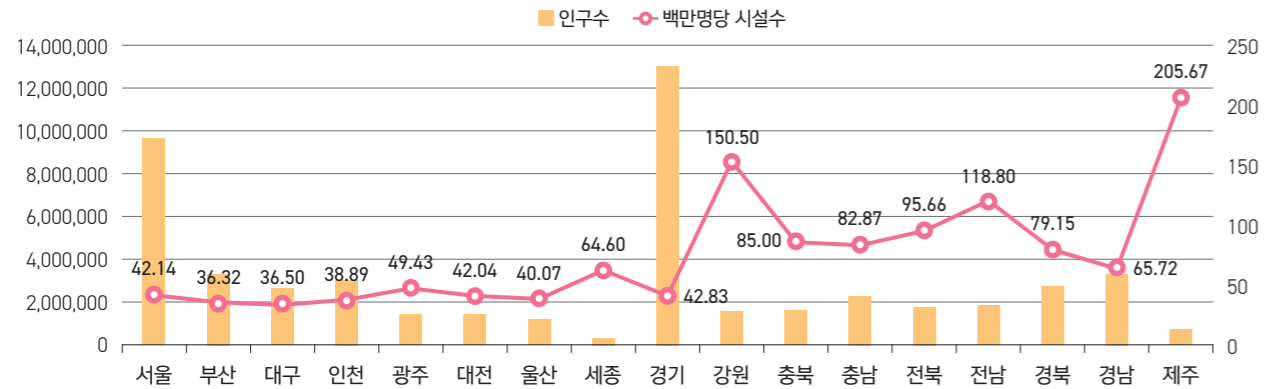


9)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10)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1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은 전국 17개 시도의 문화시설 현황을 총정리한 것으로, 문화기반시설에는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미술관, 「지역문화진흥법」상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중견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이 있다.

<표 2> 출처 : 2020 문화기반시설총람,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기반시설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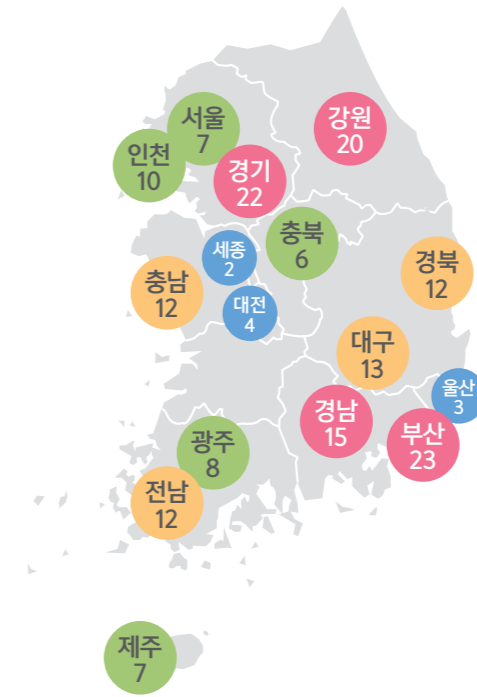
지역	총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 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수도권	1,092	3	510	292	104	26	75	66	16
지방	1,925	-	624	605	163	103	181	164	85
총계	3,017	3	1,134	897	267	129	256	230	101

<그림 3> 출처 : 2020 문화기반시설총람, 인구수 백만명당 지역별 문화기반 시설 수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문화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최근의 지역문화정책 동향과 발맞추어 풀뿌리 문화를 상징하는 생활문화 거점시설인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2014년 조성을 시작하여 2021년 11월 현재 전국에 총 195개소의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어 있다. 지역 간 문화기반시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생활문화센터 확대에 나타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 할만하다. 특히, 부산, 경남의 경우 생활문화센터 설치 현황만 보면 시민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것처럼 보인다.

<그림 4> 생활문화센터 전국 분포 현황(2021년 11월 기준)



이렇게 얼핏 데이터만 보면 문화기반시설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 문화 인프라 하드웨어의 격차가 해소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산은 생활문화센터를 제외한 문화기반시설에서 수도권은 물론 타 지역에 비해서도 여전히 격차가 벌어짐을 위의 통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의 명색에 걸맞지 않게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수와 청소년 영화관 수에 있어 수도권과의 격차가 벌어져 있음을 아래의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다.

<표 3> 출처 : 부산광역시 문화지표조사, 전국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수

구분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총계
수(개)	9	34	3	6	3	2	7	2	2	1	2	1	72
%	12.5	47.2	4.2	8.3	4.2	2.8	9.7	2.8	2.8	1.4	2.8	1.4	100

<표 4> 출처 : 부산광역시 문화지표조사, 전국 청소년 영화관 수

구분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총계
수(개)	5	17	4	2	3	3	23	1	1	1	3	3	66
%	7.6	25.8	6.1	3	4.4	4.5	34.8	1.5	1.5	1.5	4.5	4.5	100

### 5) 통계에 가려진 문화정책 수월성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格差)

그러나, 여기에는 데이터가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예술적 수월성(excellence)을 가치로 하는 국립 문화기반 시설과 문화예술기관들의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역 간 격차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문화를 공평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국립문화기관을 설립·운영 중이나,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립 공연장, 미술관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문화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오페라, 발레, 합창, 연극, 무용 등 국립 공연예술단체 역시 서울에 집중되어 수도권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sup>13)</sup> 국립이 아니라 서울시립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국립 문화기반시설 부족은 결국 지역민의 질 높은 문화예술 작품 향유를 침해 한다. 수도권과 지역 간 양적인 측면에서 문화기반시설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나, 문화예술의 수월성 관점에서는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바로 통계에 가려진 문화정책의 왜곡 현상은 다름 아닌, 국립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예술기관의 수도권 집중이다. 이로 인해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침해당하는 것이다.

### 6) 누리지 못하는 문화적 권리

국립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로 인해 우리의 헌법과 문화관련 법률에 보장된 문화적 권리를 지역민들은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화적 권리를 문화정책의 국가 지원 정당성 관점이라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면 그 문제점이 더 명확해 진다. 지방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대규모 국립문화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국가적 위엄(national prestige)으로서 문화적 가치(cultural values)를 지역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박탈감과 상실감이 크다. 티트무스(Titmuss)는 문화예술 공공지원의 근거로 몇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국가적 영광(Glory model)은 통치자나 정부는 그 사회의 번영과 조화로운 황금시대의 통치기간을 기억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지원한다고 한다. 베네트(Bennet) 역시 유사한 이론을 펼치는데, 그는 18세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유방임주의를 취한 영국 정부가 비교적 지속적으로 그리고 대규모 지출을 통해서 문화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게 된 이유는 국가적 위엄(national prestige)으로 '국가는 국가적 위신의 상징을 만들어 국내외에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4)</sup>

국민은 국가의 문화예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이러한 국가적인 자긍심이 비록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원과 보호 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대규모 문화기반시설 역시 이런 국가적 위엄의 가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로 전 세계 국가들이 지역에 균형적으로 랜드마크 문화기반시설 건축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규모 문화기반시설의 가치는 바로 국가의 상징적인 건물(iconic building)을 통해 국가의 영화와 번영, 국가적 위엄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 국가로서의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다.

<그림 5> 국립문화기반시설과 문화예술기관 분포 현황



지역의 대규모 국립 문화시설 자체가 문화적 자산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모토스기 쇼조(本杉省三, 2000)는 국가의 문화시설 건축을 문화자산으로 여기고 있는데,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협조하면서 활동을 전개하는 그 의미를 지금이야말로 빠르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랜드마크 공연장은 기념물적인 건물로 후세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world cultural heritage)의해 등재되기도 하였다. 특히, 지역에 건립된 수월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문화기반시설은 지역민이 실제로 향유하지는 않으면서도 단지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부여하는 가치인 존재 가치(existence value), 현재 존재하는 문화유산에 대해 미래의 세대가 부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치인 상속 가치(bequest value), 사회나 개인이 특정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느끼는 자긍심에 부여하는 가치인 긍지 가치(prestige value)등의 가치와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13) 현재 문체부 산하 국립 문화예술기관은 국립극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있으며, 코리아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민간단체이나 국립 오케스트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국립극단이 명동예술극장에 상주하고 있으며, 국립합창단, 무용단, 국악관현악단이 국립극장, 나머지 기관들은 모두 예술의전당에 상주하고 있다.

14) Pick, John and Malcolm Anderton. Arts Administration. E & FN Spon, 1996. p.65

지역의 우수한 문화시설은 도시 고용유지의 강력한 수단이며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문화 인프라는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것 말고도, 그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숙박에 지출하는 비용까지 합산하여 산출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도 크다. 물론 이런 경제 효과를 측정할 때 조사방법상 문제가 많은 경우도 있고 논리적인 취약성도 있어서 측정방법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으나, 여전히 대규모 국립문화시설은 문화예술 분야 고용유지의 강력한 수단이며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도시 활성화의 촉매제이자 지역 이미지를 개선할 뿐 아니라, 도시를 살고 일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빌바오 효과, 구겐하임 효과라 불리는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지역 활성화를 넘어 산업구조 전반을 혁신한 사례로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sup>15)</sup> 결국, 지역의 우수한 문화기반시설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증명되었다.<sup>16)</sup>

<그림 6> 국립 문화기반시설 수도권 집중으로 누리지 못하는 지역의 문화적 권리



15) 스타 건축가 프랑크 게리의 건축과 미술관 자체의 콘텐츠는 주변 상가, 사무실, 주택지구, 공원 개발 등을 받쳐 주는 힘이 되어 지역 재개발의 촉매가 되었다. 이렇게 문화시설이 도시의 지역 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현상을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 혹은 구겐하임 효과(Guggenheim Effect)라고 한다.  
 16) 2006년 영국 커뮤니케이션 그룹이 발간한 보고서 'The Power of Destinations'에서 문화적 랜드마크 혹은 예술과 문화 투자는 기업 입지 선정의 미래 성공을 위한 강한 지역적 정체성을 창조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혁신적인 문화예술 프로젝트는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중의 하나이다. 조사대상 기업 60% 이상은 문화예술에 대한 강한 전통 및 도시의 문화적 랜드마크가 기업 입지 선정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강한 기술적 환경이나 환율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문화예술의 상징인 문화기반시설은 기업사회에서도 또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 7)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해외의 정책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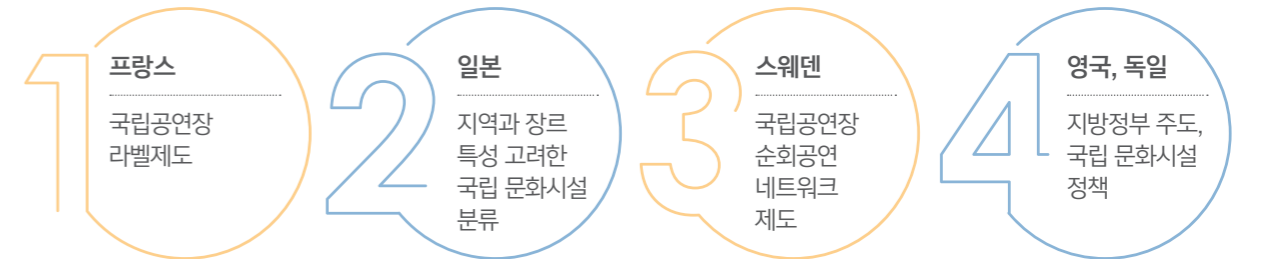
국립 문화예술기관의 수도권 집중은 해외 사례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프랑스는 각 지역과 장르 특성을 고려해 국립공연장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지원체계를 정립한 국립공연장 라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립 공연장은 문화부가 직접 관리하고, 예산을 배당하는 8개의 '국립극장'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국립 라벨 및 네트워크 소속 국립공연장'이 400여개 이상 존재한다. 동 정책의 목적은 프랑스 지방 분권화 정책에 근거하여 전국에 균질한 우수 문화 예술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립 라벨 제도는 지역의 공연장과 문화부 사이 계약 체결로 시설의 목표와 역할, 정부의 지원 내역을 명확히 명시한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프랑스는 지역과 다양한 장르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해 현대음악, 서커스, 거리극 등 새로운 장르의 공연 제작과 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 역시 지역과 장르 특성을 고려해 국립 문화시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지원체계를 정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컨대, 오사카에 국립 분라쿠극장을 설치한 것은 분라쿠라는 장르의 역사적 전통을 가진 오사카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며, 국립극장 오키나와는 지역 정체성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를 지역 재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극장을 건설한 경우이다. 문화시설의 수도권 집중 현상 해결과 전국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일본의 문화정책 역시 유의미한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의 경우 도시의 문화예술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균질한 문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국립공연장 순회공연 네트워크 제도인 릭스티아테른(Riksteatern: National Touring Theater of Sweden)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스웨덴 문화부가 창설한 조직으로 공연예술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지역 특색과 장르 형평성을 고려한 공연장 배치와 운영 실현, 전국 단위의 문화예술 협력 체계 마련, 제작 중심 극장과 축제 기능의 강화, 제작과 유통 예산과 리스크 분담을 위한 공동제작 촉진에 기여를 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복지 차원에서 균질한 공연예술을 전국에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스웨덴의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만드는 국립 문화시설 정책은 영국과 독일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는 지역에 각종 왕립, 국립, 주립 문화시설을 골고루 배치하여 문화시설의 지원 방식과 예산 결정에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두 지자체가 협력하여 한 지자체는 시설을 두고, 옆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 런던에 본거지를 둔 영국의 왕립문화예술단체는 지역의 공연장들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순회공연·전시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그림 7> 참고해야 할 해외의 정책 사례



## 8) 정책 공론화 이슈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매년 등장하는 지역 문화계의 문화공약 요구 단골메뉴가 있다. 국립 문화예술기관의 균형 배치다. 부산의 경우 10여 년 전 부산 국립아트센터 건립,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부산 분교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적도 있다. 경남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주무부서인 문체부는 진작 심각하게 검토조차 하지 않거나 정책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예컨대, 부산 국립아트센터 건립 요구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2011년 [부산 국립극장 기본계획 수립]과 [국립공연장 시설 재배치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기초연구로만 남아 용역에 제안된 내용이 정책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부산 국립아트센터는 당시 취지와 다르게 국립의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체 '국제아트센터'로 명칭 변경되었다.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 따른 국립 문화예술기관의 재배치에 대한 정무·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지역의 국립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공론화 이슈를 제시 해본다.

첫째, 국립 문화예술기관의 지역 균형 배치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 문화예술기관의 지역 이전도 이제는 문화정책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지금까지 국립 문화예술기관이 서울에 상주한 이유는 정책적으로 우수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국내·외로 확산 한다는 문화 민주화와 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기반시설이라는 이유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 문화정책이 문화 민주주의로 전환되었고, 지역 역시 국립 문화예술기관의 우수한 작품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의 문화 민주주의 사례<sup>17)</sup>에서 보듯 이제는 지역의 우수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시기가 도래 한 것이다. 예컨대, 현재 건립 중인 부산 오페라하우스에 국립 오페라단, 국립발레단이 상주 한다면 지역의 예술가와 협업을 통한 오페라 제작, 세계적인 공연예술 축제 개최, 북항을 활용한 공연예술 관광 프로그램 개발, 오페라 관객 개발 및 접근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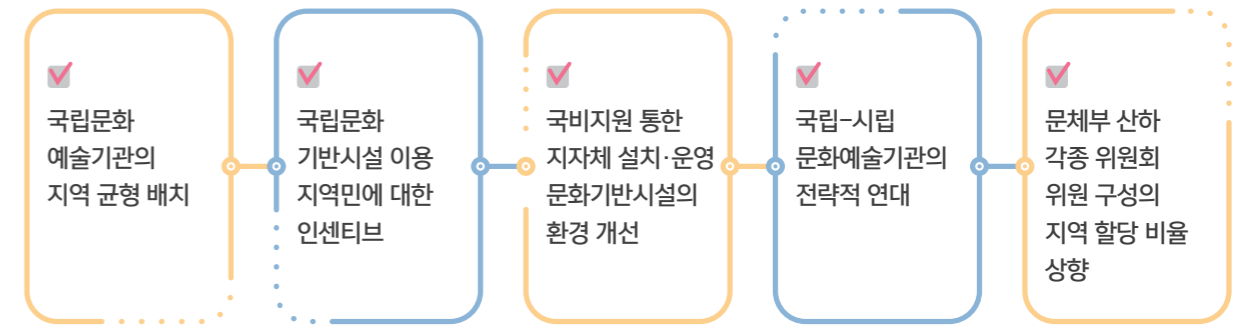
둘째, 국립문화기반시설 이용 시 지역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이다. 국립문화기반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경제적 손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문화향유를 위해 수도권으로 가는 지역민의 교통비, 숙박비 등 여비 등을 고려해 보면, 결국 문화예술의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버린다.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누리지 못하는 문화적 권리는 차치하더라도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행정의 속성인 '공평성',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이러한 경제적 불평 등 해소에 대한 관점을 지역에서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이견희 미술관이 서울에 건립된다면 문체부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입장권 할인 및 주차비 무료, 교통비·숙박비 지원책 등을 적극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해 본다.

셋째, 국비지원을 통한 지자체 설치·운영 지역 대표 문화기반시설의 환경 개선이다. 그동안 국립문화시설의 수도권 집중의 이유로 지역에는 우수한 문화예술 작품을 공연·전시 가능한 시설, 관객, 휴먼웨어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체부는 강조해 왔다. 지자체가 설치한 문화기반시설이 낙후하여 공연·전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실제로도 발생 한다. 대규모 문화기반시설의 경우 보통 10년 주기로 시설 환경개선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기반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 개선을 직접 지원하여 지역에도 수도권에 준하는 우수한 문화기반시설을 보유, 운영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립-지역 문화예술기관의 전략적 연대이다. 문화기반시설의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 공급차원에서 국립-지역 문화예술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해외의 사례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립과 지역 문화예술기관의 전략적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한 예술 작품을 지역으로부터 발산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의 국립공연장 라벨제도, 스웨덴의 릭스티아테른 사례에서 증명 하듯이, 이러한 전략적 연대는 우수 예술작품을 효율적으로 유통시켜 작품 생애 주기를 연장하고 수도권과 지역에 균질한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문체부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의 지역할당 비율 상향이다. 지역 인사의 저조한 문화정책 의사결정 구조 참여는 결국 수도권 중심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국가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다양성'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다. 문체부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비, 연령, 지역을 포함한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 보이나, 여전히 지역 위원의 비율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향후, 지역할당 비율을 높여 문화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8>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공론화



17) 김화임(2016)은 '독일의 문화정책과 문화경영'에서 독일에는 파리, 런던, 뉴욕에 버금가는 거대한 문화도시는 없지만, 작은 도시들도 고유한 문화 전통과 탄탄한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소도시들에서도 최신 연극 공연이 이루어지고, 실험적인 작품들도 무대화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9) 문화권(文化圈)의 문화권(文化權)을 위한 국가 책무의 재확인을 바라며

이건희 미술관 건립이 서울로 결정됨에 따라 수도권의 대규모 문화기반 시설 집중에 대한 지역의 정책적·정무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 또한,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문화권역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역시 주목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문화권역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문화권리 확보의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 간 경쟁에서 문화권역의 국립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이라는 문화권역 정책 어젠더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은 향후 국립 문화시설 유치를 위해 서로 경쟁 하는 것 보다 동남권의 문화권(文化權) 확보에 대한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국립 문화기반시설의 '先공동유치 後입지선정'이라는 전략적 연대와 신사업협정을 맺어야 한다. 문화권역은 양질의 국립 문화예술단체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서도 공동 협력해야 하며, 해외 사례와 같이 국립문화기반시설의 지역 배치 확대 및 국립 문화예술단체와 장르별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제공 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국립기관과 맺는 것도 중요하다. 헌법,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은 바로 지역문화 인프라 격차(隔差) 해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책무로 동법들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문체부의 정책 입안자는 이점을 꼭 명심하며 부디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 지역의 문화권역도 균형발전에 걸맞게 국립 문화예술기관의 지역 이전 및 균형 배치를 문화정책적 차원의 검토를 넘어 이제는 국가정책 의제로 격상해서 공동대응 해야 할 것이다.

## IV. 부울경 메가시티 협력 방안

- 1) 부울경 지역문화재단 협력 네트워크 결성
- 2) 부울경 네트워크 기반 협력 사례
- 3) 부울경 네트워크 기반 협력 가능성 확대
- 4) 부울경 정책 협의체의 방향성
- 5) 부울경 정책네트워크 활발한 교류를 기대하며

## IV 부울경 메가시티 협력 방안

### 1) 부울경 지역문화재단 협력 네트워크 결성

문화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문화재단간 협력과 연대의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본격적 시행과 함께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지금까지 지역문화재단 간 협력의 동향을 보면 그동안 개별 사업을 통한 네트워크 협업에서 기관 간 조직 차원의 네트워크로 확장되어 있다. 서울, 경기, 충청권, 호남권을 중심으로 광역·기초 문화재단 간 협약을 통해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은 지역문화재단의 양적 팽창과 함께 광역과 기초 간 역할분담의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부울경 지역은 타 권역에 비해 광역·기초 문화재단 간 네트워크 구축이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우선,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타 지역에 비해 늦었을 뿐 아니라, 광역시와 광역도의 행정 권역에서 오는 기초문화재단 설립의 온도차가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이다.<sup>18)</sup> 따라서, 부울경 지역문화재단 네트워크는 광역·기초의 경계를 넘는 확장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부울경 지역문화재단 협력 네트워크'가 2017년 7월 출범하게 된다.<sup>19)</sup>

### 2) 부울경 네트워크 기반 협력 사례

부울경 지역문화재단 간 창작공간 협력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공공에서 조성한 창작공간의 양적 확대와 그 궤를 같이한다. 창작공간의 교류 활성화, 작가 간 창작과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부울경 지역 창작공간 네트워크 사업이 그동안 5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김해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 통합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부울경 지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창작공간에 대한 소개와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며, 부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흥티아트센터에서는 흥티킵 우수예체능대회를 개최하여 재단 담당자 및 입주작가들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교류는 민간 창작공간까지 확대되어 부울경 레지던시 창작공간 간의 실무자 및 작가 간의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이 활발해졌다. 향후, 광역의 창작공간과 기초의 문화기반시설이 공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콘텐츠의 창작과 향유가 일원화될 수 있는 구조로 그 파급효과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광역문화재단의 지역특성화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공연단체는 기초의 문화기반시설에서 공연을 전제로 작품의 기획에서부터 공연까지 모든 과정을 창작공간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광역의 창작공간은 팩토리 기능을 기초의 문화기반시설은 마켓의 역할 분담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국가 문화정책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권역별로 기초문화재단과 정책사업을 통한 공동 협업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문화다양성 사업과 문화예술교육분야라 할 수 있다. 기초문화재단의 경우도 최근 몇몇 지역(부천, 안산, 김해 등)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특히 네트워크 기반 협력방안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분야이며,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광역과 기초문화재단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부울경 지역은 지역특성화 운영단체 간 네트워크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운영단체 경상권 합동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각 지역 간의 정보 공유 및 타 지역사례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광역과 기초문화재단은 권역별 문화예술교육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예컨대, 광역의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및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기초문화재단이 운영·관리하는 지역의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광역의 지특사업을 잘 활용한다면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문화 다양성 사업의 협력, 연계 역시 활발히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2017년도 5월 부산에서 문화다양성 주간 개막식이 개최되었다. 당시 부울경 광역·기초문화재단과 지역의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협력하여 문화다양성 놀이터, 꽃길 걷기, 운영 부스를 공동 운영하였다. 당시 관계자들의 반응이 좋아 향후 이를 더욱 확대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렇게 국가문화정책 사업을 지역 간 경쟁이 아닌 권역별로 협력한다면 더욱 지역문화가 풍성해 질 수 있다.

### 3) 부울경 네트워크 기반 협력 가능성 확대

부울경 광역·기초문화재단간 네트워크 기반의 협력은 그동안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향후 지속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인적자원 교류의 관점이다.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교류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요구는 광역·기초 실무자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문화진흥법,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더욱 그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변화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신속한 행정적 대처가 필요하며, 다방면에 걸친 상호간 지식공유가 가능할 것이다. 강원문화재단의 경우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소속 기관 입사 2년차 미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역량강화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참가 직원들의 높은 만족도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직원역량강화 워크숍을 권역별 광역·기초문화재단 통합 워크숍으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 배출된 인력을 인턴십 교류를 통해 양성하는 것도 인적자원 교류의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둘째, 공동 정책연구조사의 관점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과 함께 지역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연구조사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광역을 중심으로 정책연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면, 기초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 부울경 지역문화재단 협력 네트워크는 이러한 정책연구조사를 공동으로 실행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예컨대, 부울경 권역별 예술인 실태조사 혹은 문화트렌드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울경 권역별 지역문화자원의 공통사항, 특이점 등의 결과를 도출하여 각 지역별 특색 있는 정책 및 사업 개발 뿐만 아니라 부울경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데이터로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 권역에 비해 지역문화재단의 역사가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부울경 지역문화재단의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로드맵 연구의 공동 실시도 고려해 볼만 하다.

18) 부산시와 울산시의 경우 경남도와 다르게 구단위 기초문화재단에 대한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존재한다.

19) 부울경 11개 지역문화재단(광역 3, 기초8)이 상호협약을 통해 문화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재단간 협력, 연대 기반 마련을 마련하였으며, 개별 사업을 통한 네트워크에서 조직 차원의 네트워크로 확장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성과 도출 강화를 목적으로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셋째, 인적자원 교류와 공동 연구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공동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협업의 관점이다. 위에서도 제시하였듯이 문화다양성,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 국가 정책사업의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협업하는 구조를 갖는 것이다. 지역의 우수한 문화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기초문화재단은 광역문화재단의 공연장상주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권역별 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역 공연예술 단체들의 창작과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예컨대, 부울경의 경우 기초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김해문화의 전당, 창원 성산아트홀이라는 우수한 시설에 부울경 광역문화재단에서 육성 양성된 상주 단체들이 연간 지속적인 공연 프로그래밍으로도 구성할 수도 있다.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울경 공동 창작공간 및 레지던시를 조성하여, 지역의 설화와 역사를 소재로 한 뮤지컬 같은 공연작품을 제작하여 지역의 문화적 동질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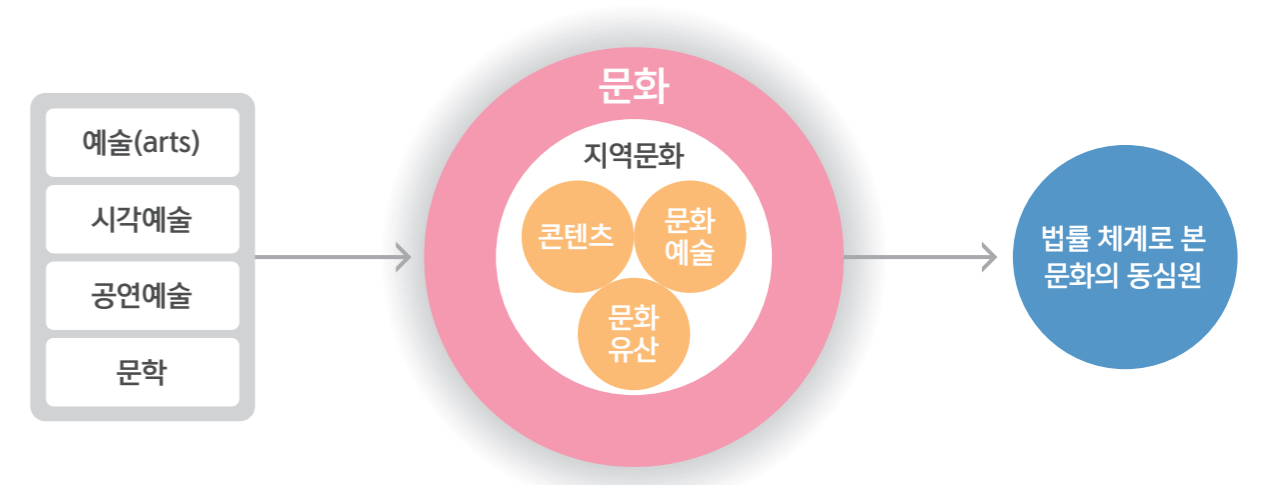
<그림 9> 부울경 광역·기초문화재단 지속적 협력 가능성



#### 4) 부울경 정책 협의체의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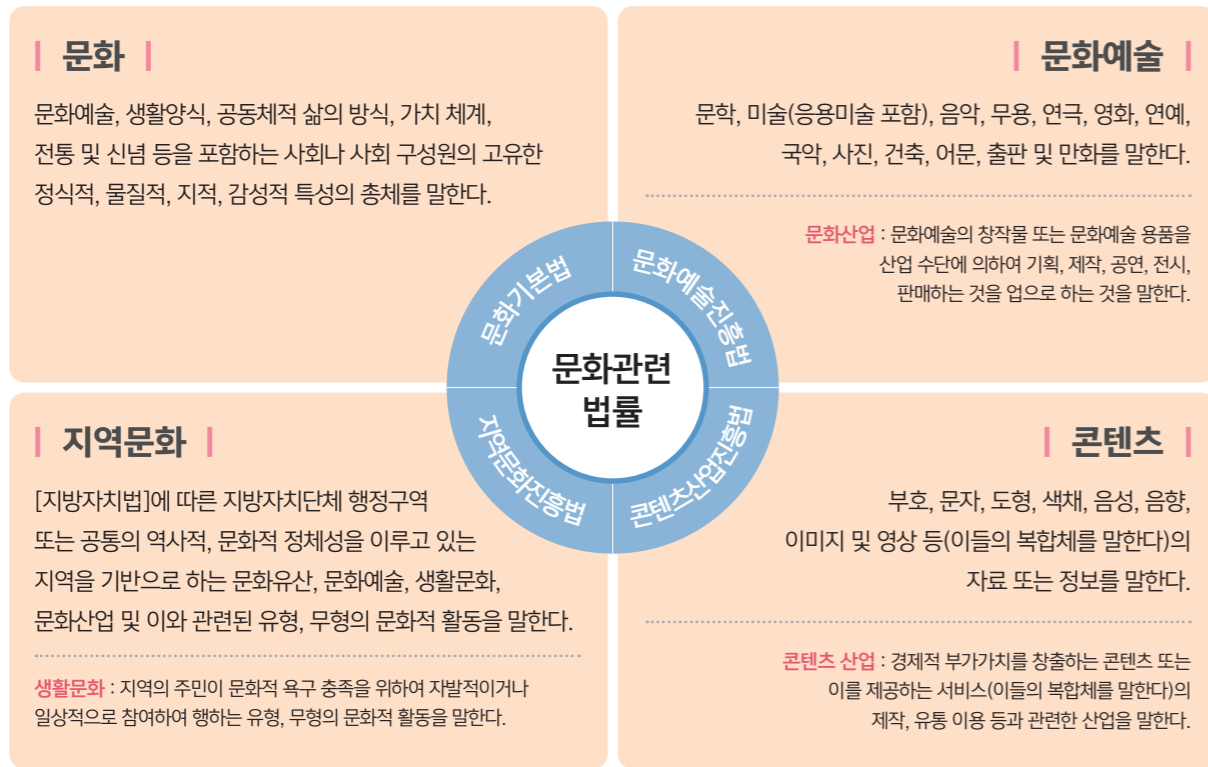
부울경의 정책관련 부서는 조직, 인력, 세부적인 역할과 기능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역의 문화생태 환경과 문화재단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광역문화재단이 가지는 정책 기능과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부울경 정책 협의체의 방향성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광역문화재단의 일반적인 정책기능과 역할에 대해 분류해 보기로 한다. 광역문화재단의 문화정책 기능에서 “정책”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리부터 필요한데, 개념규정을 명확히 해야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책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을 말하며, 지자체의 경우는 시책이라 표현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공공 행정의 행동방침을 정책이라 명명한다. 따라서, 정책은 법률·사업·사업계획·정부방침·정책지침·결의 사항과 같이 여러 형태로 표현된다.<sup>20)</sup> 문화정책의 정의는 좁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정의된 ‘문화예술’을 다루는 것에서부터 넓게는 문화기본법에 정의된 ‘문화’의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법과 제도, 사업, 방향성과 지침, 예산과 조직에 대한 의사 결정 사항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정책은 예술(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을 넘어 아래의 법률체계로 본 지역 문화, 콘텐츠(문화산업), 문화예술, 문화유산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그림 10> 문화정책의 정의



<sup>20)</sup> 정책(政策)이란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 개념을 말해보라 하면 정확히 정의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정책이란 말은 그 사용도에 따라 뜻이 조금씩 달라지는 데다, 그 개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책 [政策, policy, Politik]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그림 11> 문화관련 법률 및 용어의 정의



광역문화재단의 정책 기능은 위에서 정의한 문화정책의 일반적 개념을 중심으로 아래의 도표와 같이 [정책 거버넌스], [정책 제언 및 자문], [정책 연구조사], [정책 사업 개발]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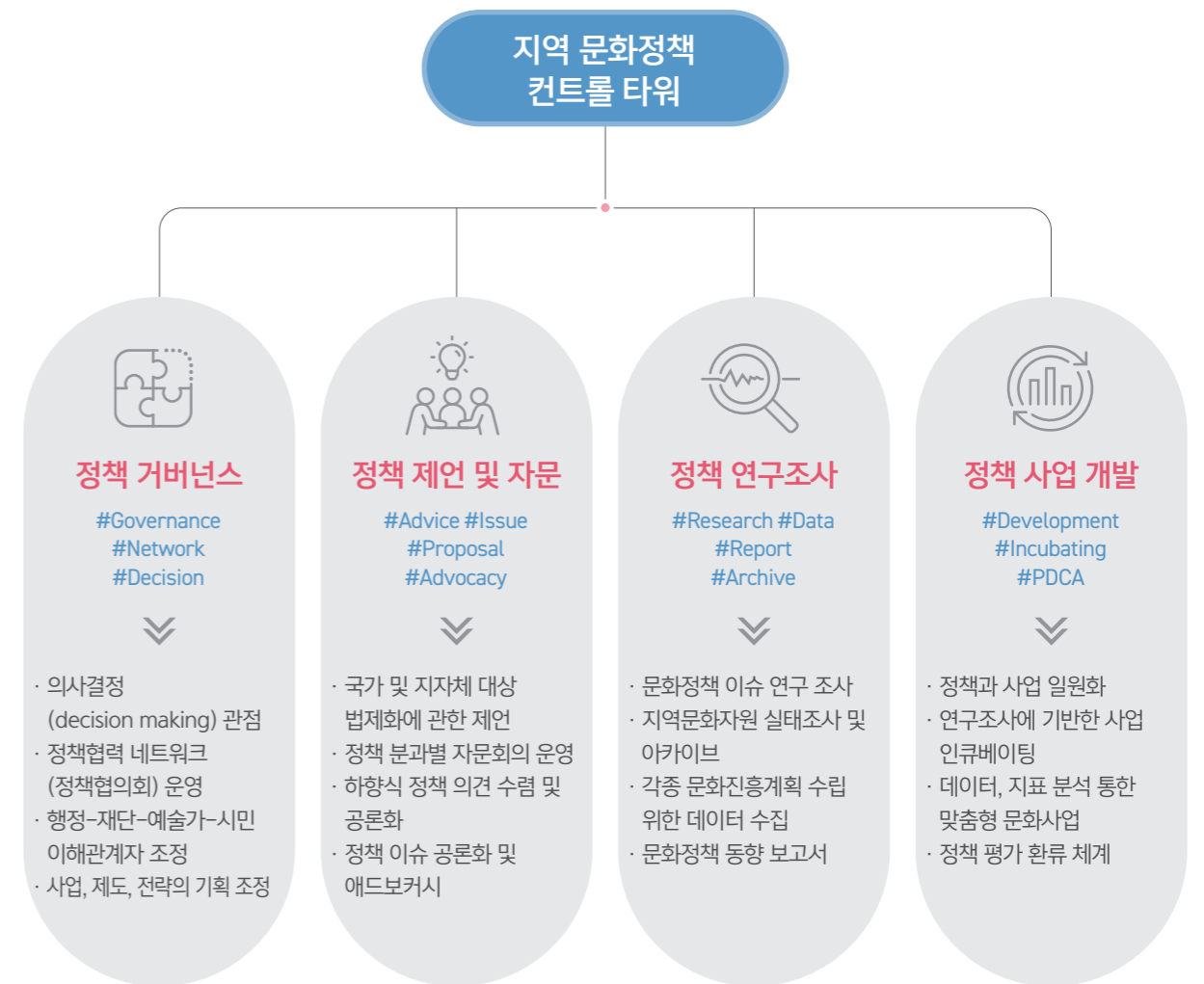
첫째, 정책을 의사결정의 관점으로 보는 정책 거버넌스인데, 문화재단은 행정-재단-예술가-시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재단 내부의 사업, 제도, 예산, 평가의 전략적 기획 조정 역시 중요한데, 문화재단의 정책 기능을 좁게 해석하면 바로 이 역할을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책 제언 및 자문의 기능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범위에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화재단의 정책 기능은 바로 국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 이슈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며, 이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애드보커시 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포럼 및 세미나, 각종 자문회의 운영을 통해 의견수렴의 하향식 정책결정 과정이 문화재단에 부여된 주요한 역할인 것이다. 특히, 광역문화재단은 국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제화에 관한 전문적 제언을 통해 문화재단의 정책기능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이다. 연구조사는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정책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영역이다. 지역문화재단의 실태조사 및 아카이브, 문화정책 동향 보고서 및 이슈 페이퍼 발간, 각종 데이터 수집 등을 세부적인 업무로 볼 수 있다. 부울경 정책관련 부서들은 연구조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연구조사가 연구로만 끝날 경우 내지는 연구를 위한 연구만을 수행하게 되면 부서 존폐에 위기가 올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개발(Development)을 전제로 한 연구(Research)가 되어야 한다.

넷째, 정책과 사업의 일원화 관점의 정책 사업 개발이다. 즉, 연구조사에 기반한 정책 사업을 직접 인큐베이팅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지표 분석을 통한 목적 중심의 맞춤형 문화사업을 개발 하는 것이다. 정책 사업 개발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지역문화재단 정책 기능의 정점은 바로 정책 사업 개발에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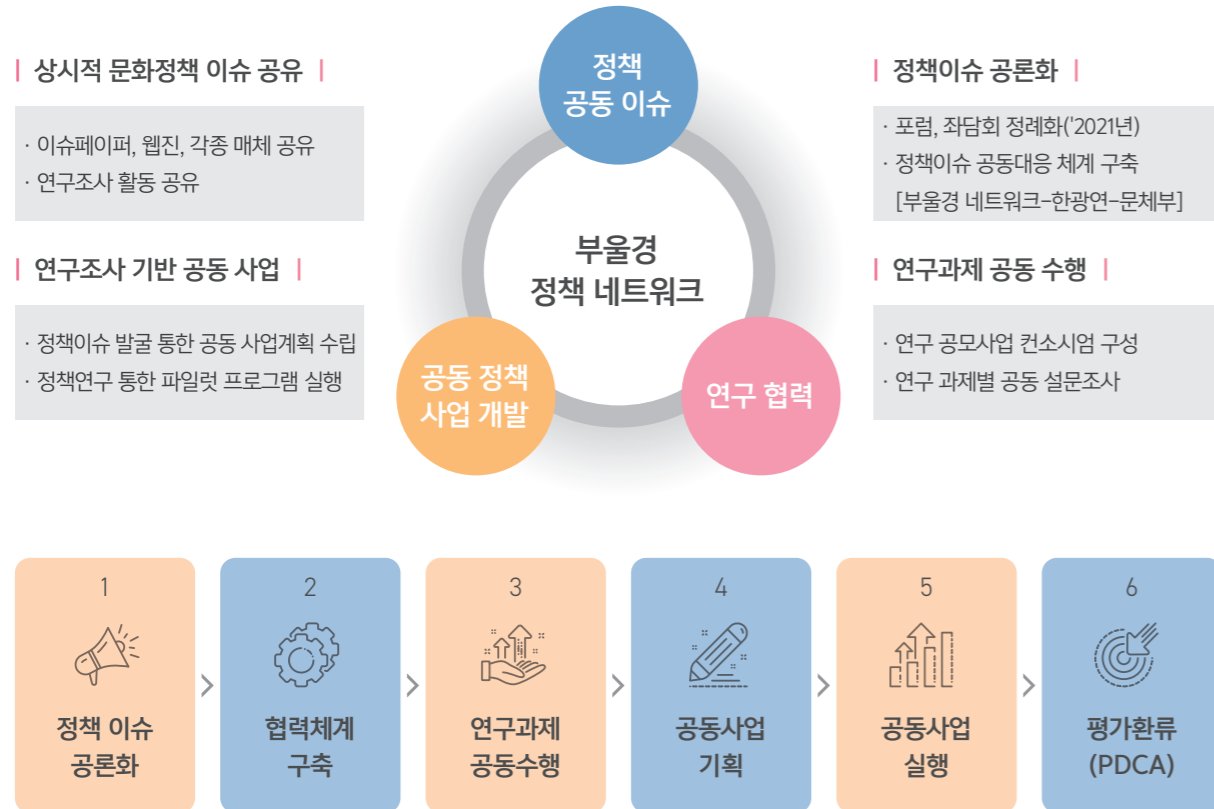
<그림 12> 지역문화재단의 정책 기능(광역문화재단 정책 역할 분류)



### 5) 부울경 정책 네트워크 활발한 교류를 기대하며

부울경 정책 네트워크는 정책의 다양한 관점에서 연대와 교류를 시작할 수 있다. 우선, 가장 낮은 단계인 상시적인 문화정책 이슈 공유 차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부울경 정책 네트워크 라운드 테이블 형식을 빌려 연구조사 활동을 공유하며, 각 재단이 보유한 정책 매체(이슈페이퍼, 웹진 등)등의 협력을 통해 상호 협력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는 현안 위주로 정책 이슈를 공론화 하는 장을 공동으로 마련할 수 있다. 정례적으로 포럼,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며, 정책이슈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한 광연-문체부에 주기적인 정책 제언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연구과제 역시 공동으로 선정하여 수행하는 방식도 고려 해 볼 만 하다. 국가 연구 공모사업에 부울경 정책 네트워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연구 과제별 역할 분담과 공동 설문조사 역시 실시한다면 부울경 지역문화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이 가능 할 것이다. 부울경 정책 네트워크는 궁극적으로 연구 조사 된 결과물을 중심으로 공동 사업을 계획 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공동 정책 사업 개발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부울경 정책 네트워크야 말로 이상적인 활성화 방안이라 할 것이다. 향후, 적극적 연대와 협력, 소통을 기대해 본다.

<그림 13> 부울경 정책 네트워크 : 활성화 방안



## V. 2030 엑스포 대응,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 1) 문화 협력 위한 아시아 문화연대 조직
- 2) 부산 자매우호도시와의 문화교류
- 3) 문화교류를 통한 한일 관계 회복
- 4) 동남권 메가시티와 연계

## V 2030 엑스포 대응,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 1) 문화 협력 위한 아시아 문화연대 조직

#### ① 추진배경

- 2017년 12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약칭: 국제문화교류법) 시행과 함께 국제문화교류진흥 및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이 대두됨
  - 부산시의 동아시아 문화수도, 아세안 국가와의 신(新)남방정책 추진 대외환경에 대응해 전문적인 국제문화교류 기관으로 위상 정립
  - 2018년에 추진된 동아시아 문화도시(부산-하얼빈-가나자와) 추진 후 성과 계승 필요

#### ② 주요 쟁점

- 국제 교류 사업 참여 예술인은 증가 되고 있기는 하나, 단발적이며 아시아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기 프로젝트 부족
- 동아시아 국제 레지던시 교류 사업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 강화 필요
  -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행사 일환으로 3개국 도시(한국 부산, 일본 가나자와, 중국 하얼빈)의 예술인 교류가 추진 되어 총 4건의 교류 및 홍티아트센터 레지던시 협업 작업 등이 추진되었으나 2019년 성과 계승을 위한 신규 사업이 편성되지 못함
- 국제교류 기반 조성 전담 부서 부재, 조선통신사 교류 사업 위주 업무 편성
  - 재단 국제교류 역할을 하는 문화유산 팀 경우 조선통신사 교류 사업 위주 직무 운영
  - 아시아권역 문화교류 확대 역할을 하는 전담 부서나 TF 형태의 업무형 네트워크 필요

#### ③ 실천과제

- 아시아 문화교류 전담 직제 구성
  - 현재 조선통신사 업무를 하는 문화유산 팀 직무 조정을 하거나, 문화교류를 책임성 있게 전담할 수 있는 업무형 네트워크(TF팀 등)를 운영 해 아시아 문화교류 플랜 구성 및 추진
- 아시아 문화 협의체 구성
  - 아시아 문화포럼을 개최해 도시 간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예술인 교류와 실무자 네트워크로 공동 의제와 사업을 발굴함. 아시아 문화협의체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교류 추진
    - ▶ (1단계) 아시아 문화 포럼 개최
    - ▶ (2단계) 아시아 문화 연대 실무추진단 구성
    - ▶ (3단계) 아시아 문화연대 조직 및 주제별 아티스트 교류
    - ▶ (4단계)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류 추진

#### | 타 지역 사례 |

- ▶ (제 3차 아시아 청년 포럼) : 2009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후원 개최, 아시아 청년기금 의결 24개국 정부기관 및 유네스코 본부 인사 등 60여명 참가 해 교류
- ▶ (서울) : 세계도시문화포럼 개최(2017), 35개 회원국 도시들의 문화정책 정보 교류
- ▶ (광주) : 아시아 문화포럼 지속 개최(12회까지 완료), 아시아 문화 허브로 광주광역시 비전 교류

## 2) 부산 자매우호도시와의 문화교류

### 1 추진배경

- 부산의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에는 전 세계 주목을 받는 도시가 다수 존재함. 적극적인 문화예술교류 확대를 통해 부산 문화예술의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필요 있음
- 해양 도시로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해양 문화 콘텐츠 발굴 육성하고 교류할 필요 있음

### 2 주요 쟁점

- 현재 부산은 23개국 26개의 자매도시와 6개국 10개의 우호협력도시를 두고 있으며, 협약된 도시 대다수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음. 그러나 2017-2018년도 기준 문화교류 추진 도시는 5개에 불과하며 단일 프로젝트에 그침

<표 5> 부산의 자매·우호도시

자매도시			우호 협력도시	
가오슝	로스앤젤레스	시모노세키	중국	선전(shenzhen)
바르셀로나	리우데자네이루	블라디보스토크		톈진(Tianjin)
상하이	수라바야	빅토리아		충칭(Chongqing)
티후아나	호찌민	오클랜드		베이징(Beijing)
발파라이소	웨스턴케이프주	몬트리올	일본	오사카(Osaka)
이스탄불	두바이	후쿠오카		나가사키(Nagasaki)
시카고	상트페테르부르크	2017-2018년도 문화교류 추진 도시	태국	방콕(Bangkok)
뭄바이	테살로니키		이란	반다르아바스(Bandar Abbas)
세부	양곤		몽골	울란바토르(Ulaanvaatar)
프놈펜	카사블랑카		파나마	파나마시티(Panama City)

- 해양문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부산학 등)와 일부 아카이빙 작업 외 해양문화도시 브랜드 구축에 걸 맞는 문화 교류와 선도 사업 부재
  - 해양 문화자원의 범주와 정의가 불분명함. 바다를 활용한 문화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부산이 가진 역사적 특성을 활용하자는 점인지 모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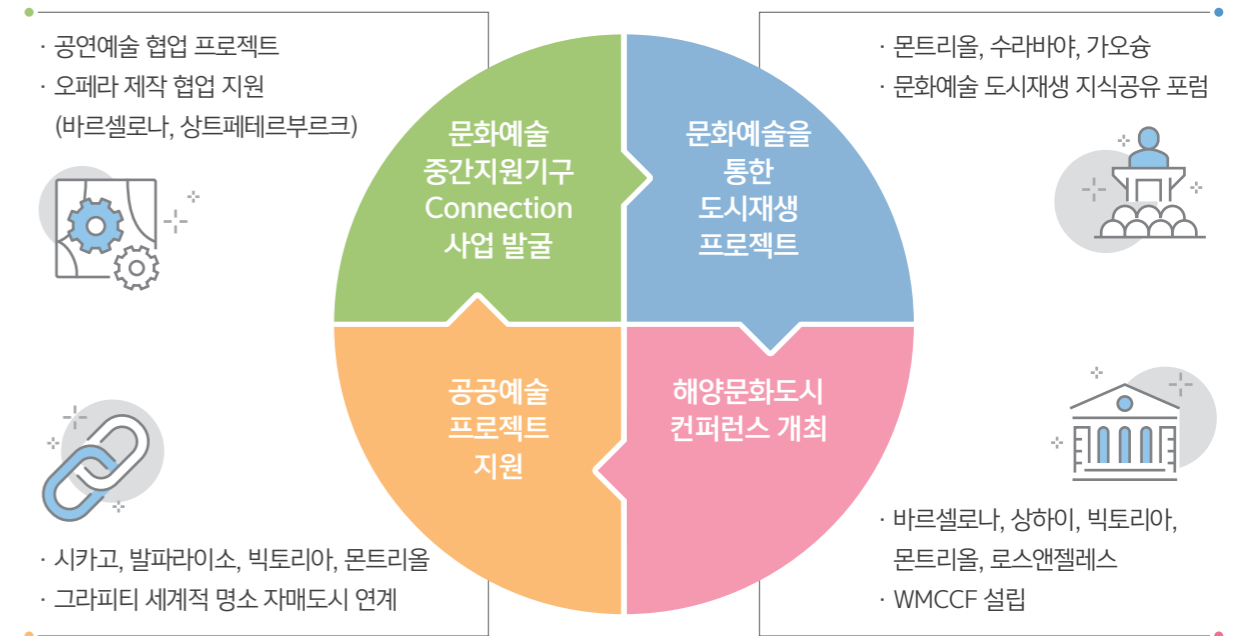
### 3 실천과제

- 문화예술 장르별 중장기 국제교류 지원
  - 해양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와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장르별 특화 문화교류를 3년간 추진함

#### | 장르별 국제문화교류 예시 |

1. 공공예술 프로젝트 지원(시카고, 발파라이소, 빅토리아 등) : 공공예술, 그래피티의 세계적 명소가 된 부산의 자매도시 작가들과 교류 프로젝트 지원
2. 오페라 제작협업 지원(상트페테르부르크, 바르셀로나 등) :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과 동시에 부산의 오페라, 발레 단체와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 극장을 가진 도시와 제작 기술에 관한 아카데미 및 워크숍 지원
3.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지원(몬트리올, 수라바야, 가오슝 등) : 부산의 문화 도시재생 등과 연관 해 문화예술을 통해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자매도시 간 교류 지원

<그림 14> 타국의 국제문화교류 사례



### 3) 문화교류를 통한 한일 관계 회복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한일 관계 회복의 기대감 고조 이슈에 따른 한일 공동 세계기록유산 조선통신사 문화사업의 플랫폼 기관인 부산문화재단이 주도하는 문화적 해결 방안 제시 필요

#### 1 추진경과 및 배경

- 부산문화재단과 일본의 연지연 주도 조선통신사 기록물 한일 공동 등재(2017.10.31.)
  - 최초의 한일 공동 등재, 부산시 최초의 세계기록유산, 최초의 민간등재(부산문화재단, 연지연)
  - 2017년 부산시 10대 시정 뉴스, 대통령상 세종문화상 수상(2018)
- 13차 대마도 사행 계획(2019), 동경올림픽 행렬재현 계획(2020) 등 한일관계,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통신사 복원선(2018 건조)을 활용한 新조선통신사 대마도 사행으로 문화교류를 통한 평화 구축이라는 조선통신사의 이념 복원
  - ※ 1811년 12차 조선통신사 사행은 대마도에서 끝남
- 제 20대 대통령 당선자의 한일 관계 회복 의지
  - 윤 당선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년) 계승...현안 포괄적 해결”
  - ※ 김대중-오부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핵심은 한일간문화개방을 통한 교류

#### 2 13차 新조선통신사 사행을 통한 한일 문화교류 뉴 파트너십

-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UN SDGs) 16번(Peace) 17번(Partnership) 과제 반영한 문화사업 기획
- 12차 대마도 사행(1811년) 이후 200여년간 이어온 굴곡의 한일 관계를 “문화를 통한 평화 구축이라는 뉴 파트너십” 국가 의제로 부각
-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 5주년 가치 확산을 통한 한일 민간이 주도하는 오사카 박람회(2025) 성공 및 부산엑스포(2030) 유치 지원 범업 조성
-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과거와 미래를 잇는 한일 新조선통신사 사업 다각화

#### 3 13차 新조선통신사 사행 협력 네트워크 구성

- 한일 정치인, 조선통신사 관련 유관기관, 문화예술 전문가, 학계, 시민의 범 협력 네트워크 방안 체계화
- 협력 네트워크 구성(안)

<표 6> 조선통신사를 중심으로 한 한일 협력 네트워크 구성(안)

구분	한국	일본	협력, 연계
핵심기관	부산문화재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지연 문화청	- 한일축제한마당조직위원회 - 한일교류기금 - 국제교류기금(한국), 재팬파운데이션(일본)
지자체	부산시	나가사키현	
정치	한일 조선통신사의원 연맹	한일 조선통신사의원 연맹	- 대통령 비서실장 예정자인 장재원 의원 - 국회 한일의원연맹 고문, 조선통신사위원회위원장 정진석 의원
문화, 지성	강남주 전)부경대 총장 장제국 동서대 총장 강상주(일본동경대 명예교수) 나카오 히로시(교토예술대 객원교수) 가라타니 고진(일본을 대표하는 사상가, 문학비평가, 작가) 유미리(재일교포 유명 소설가) 정의신(작가, 연극연출가. 영화 야키니쿠 드래곤 감독) 최양일(재일 한국인 영화감독)		-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계, 학계 인사로 구성 - 재일 한국인 유명 문화예술인

#### 4 한일 문화교류 플랫폼 2030 비전 제시



#### | 핵심사항 |

- ▶ 조선통신사 복원선 세토내해 항해와 행렬 재현(오사카 박람회, 2025)
- ▶ 2025 오사카 박람회 부산의 대표 콘텐츠로 참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범업
- ▶ 2030 부산-오사카 문화교류를 통한 조선통신사 평화의 길 세계유산 등재



<그림 15> 한일 문화교류 플랫폼 2030 비전



4) 동남권 메가시티와 연계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 이슈

**동남권 메가시티 - 비전**  
동북아시아의 8대 메가시티, 부·울·경 One Team

**핵심가치**  
| 포용 | 번영 | 지속 가능성 | 삶의 질 | 자치분권 | 안전 |

**목표**

생활공동체 '형성'을 통한 공유와 통합의 정책사업 추진	경제공동체 '실현'을 통한 지역과 국가의 재도약 실현	문화공동체 '형성'을 통한 함께 누리는 문화권 조성	행정공동체 '구축'을 통한 자치분권의 선도모델 제시
--------------------------------	-------------------------------	------------------------------	------------------------------

**핵심전략**

<b>확장성</b>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	<b>정체성</b> 동남권 고유의 정체성 확립	<b>연계성</b> 기능별 다핵 네트워크 형성
------------------------------	------------------------------	------------------------------

-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제4장 문화 관광 분야 (2021.3, 부산, 울산, 경남연구원)
-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동남권 3개 시도가 공동대응
    - 엑스포 유치 지원위원회구성, 홍보부스 및 '동남권관' 운영
    - 동남권 공동 국제심포지움, 팸투어 공동기획 운영
  - 동남권 아시아 문화 허브 구축
    - 동남권 아시아 문화 허브 비엔날레 순환 개최
    - 동남권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 동남권 청년문화 교류 거점 조성
    -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동남권 한달살기 프로젝트

동남권 메가시티 문화분야 이슈  
 ▶ 문화적 동질성에 근거한 문화적 공동체 추구를 이념으로 하여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나 내용의 부적합성, 전문성 및 구체성 결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음

부울경 메가시티 국제문화교류 거점, 문화자유지역

**부산 문화비전 2030 문화자유구역 계획**

- 북한의 유라시아 걸쳐 플랫폼
-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준한 문화자유구역 지정
- 부산시 국제문화교류 특화 모델 사업으로 확장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자유지역 구상**

- 동남권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국제문화교류, 지역문화사업의 특화 모델 사업으로 개발
- 예술인 비자제도를 통해 아세안+3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조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
-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등과 연계하여 동남권 메가시티에 걸맞는 문화 콘텐츠 분야 역점사업으로 파급효과 확대
- 아세안+3 창조인력의 모빌리티, 세제혜택, 공모지원사업 등 추진 [동남권 메가시티 주도 아트비젤 유치]

문화자유지구 해외 유사 사례

**| AI Quoz Creative Free Zone |**

- UAE는 예술가, 작가, 혁신가들의 창조산업을 위한 창조 자유 구역 (Creative Free Zone)을 두바이의 AI Quoz 지구 재개발을 통해 현재 건설 중임
- 세계 최초의 문화자유지역 계획으로 국내외 관객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예술가, 창조적인 사람들이 AI Quoz에서 살고, 일하고, 공연전시 할 수 있도록 장려
- UAE 정부의 광범위한 서비스와 시설 제공하며, 특히 No Taxes,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두바이를 창의력 기반의 창조산업 글로벌 허브 만들기 위한 UAE의 새로운 문화적 비전

**| Berlin Artist visa |**

- 베를린 거주 예술가를 위한 비자 제도
- 3~4개월 소요되는 프리랜서 비자에 비해 당일 발급 가능
- 유럽의 젊은 예술가 유입을 통해 유럽 문화수도 베를린 위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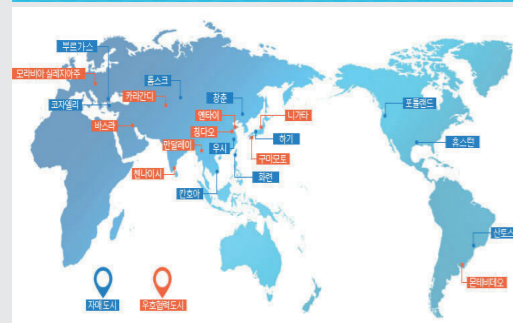
### 부울경 메가시티-아세안+3 자매우호협력 도시 네트워크



#### 메가시티 자매우호 도시

- ✓ 부산(26개 자매도시, 10개 우호협력도시)
- ✓ 울산(9개 자매도시, 10개 우호협력도시)
- ✓ 경남(11개 자매도시, 10개 우호협력도시)

동남권 메가시티 76개 자매우호협력도시 문화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 부울경 메가시티-아세안+3 해양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부울경 메가시티는 “해양 문화도시”로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아세안+3 해양도시와 다양한 해양문화 콘텐츠 발굴을 육성하고 교류할 필요가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 해양문화도시 포럼 (WMCCF)

##### | 국제 컨퍼런스 |

LA, 바르셀로나, 멜버른 등 해양성에 도시 브랜드를 둔 전세계 제2의 도시 해양문화 컨퍼런스 개최

##### | 인적 교류 |

ASEAN+3 자매우호도시, 문화예술기관 인적, 프로그램 교류

##### | 포럼 설립 |

동남권 메가시티 ASEAN+3 도시간 해양문화도시 포럼 설립

##### | 프로그램 개발 |

중간지원기구 중심, 장르별 해양문화 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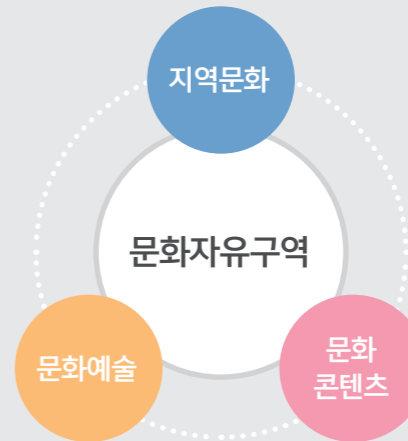
### 유라시아 컬처 플랫폼 구상

#### | 문화자유구역의 창조산업 분야 |

지역문화 콘텐츠 영화영상 창조산업 문화예술 문화유산

#### | 지역문화 자치 구현 |

- 북항, 원도심 문화구역의 에코뮤지엄
- 세계적 규모의 지역문화 클러스터
-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구 (피란수도, 조선통신사)
- 산업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 | 문화예술 국제교류 플랫폼 |

- 세계적인 문화예술 융복합 센터 건립
- 아트비젤 유치
- 동아시아 선상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 국제 해양공연예술 축제 개최

#### | 콘텐츠 제작, 유통, 마켓 플랫폼 |

- ICT 융복합 콘텐츠 기업 유치
- ICT와 문화가 결합한 콘텐츠 제작, 유통
- 아세안+3 문화 콘텐츠 마켓 육성
- 국내 최대규모의 K-Culture 박물관 건립

### 문화융합 플랫폼 구축 과제

#### 소프트웨어

아세안+3 문화허브로서 부산-메가시티-한국의 환경 분석



- 지역문화예술 환경 분석
- 지역문화콘텐츠 환경 분석
- 한국, 동남권메가시티, 부산 차원에서의 경쟁력 분석

국내 주요도시 아세안+3 문화교류 실태 분석



- 수도권, 부산, 광주·전남 등 광역별 한-아세안 문화교류 실태
- 지역별 주요 전략, 문화공간(시설), 축제·프로그램 등 분석

아세안 주요국가 지역 문화교류 동향 분석



- 아세안 10개국 주요국가의 문화교류 동향, 관련시설 조성현황 등 분석
- 아세안 문화교류 해외 유사 사례 동향 분석(일본, 중국 등)

아세안+3 문화허브 ‘메가시티’ 비전



- 여건분석을 통한 부산의 ‘아세안 문화허브’로서의 가능성 타진
- 아세안+3 문화허브 ‘메가시티’ 개념 설정
- 비전, 핵심가치 및 전략 목표 제시

아세안+3 문화허브 ‘메가시티’ 전략과제



- 핵심 콘텐츠 도출, 공간, 주요사업 등 전략 모색
-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하드웨어 전략 과제 제시
- 대표적인 인큐베이팅, 플래그쉽 프로그램 구체적 제안
- 추진체계 제시(조직, 예산, 인력 등)

## 문화융합 플랫폼 구축 과제

## 소프트웨어

## 문화예술 플랫폼

»

-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등 대표 프로그램 교류 방안
- 메가시티-아세안+3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활용 방안
- 메가시티-아세안+3 각국의 축제 교류 방안

## 문화콘텐츠 플랫폼

»

- 문화와 기술 융합의 동남권 메가시티-아세안+3 프로그램 개발
- 메가시티 문화산업, 콘텐츠의 아세안+3 진출 방안
- 아세안+3 주요 국가의 메가시티 내 문화콘텐츠 투자방안
- 한류 콘텐츠 전진기지로서의 과거, 현재, 미래전망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영화, K-POP 콘텐츠산업 교류 플랫폼 구축 방안

## 문화다양성 플랫폼

»

- 부울경 메가시티의 문화적 동질성인 '개방과 포용'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추구
- 부울경 문화다양성 축제 연계 방안
- 종교, 인종, 성별 등의 다양성을 표방하는 포용도시(inclusive city)전략 구축

## 과제

## 휴먼웨어

부산의 아세안 문화이동  
(Cultural Mobility)

»

- 경남 문화예술인, 문화콘텐츠 관련 종사자의 아세안 각국 진출 방안
- 관련 지원 정책 및 제도
- 경남도민의 아세안 문화 교류 참여성 확대 방안

## 아세안의 부산 문화이동

»

- 아세안 각국 문화예술인, 국민의 경남 문화 교류·참여 확대 방안
- 아세안 각국 문화예술인 교류 및 지원 정책 방안
- 경남 주재 아세안 각국 이주민의 문화교류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 과제

## 전달체계

부울경 문화교류플랫폼  
구축을 위한  
국제기구(기관) 설립

»

- 아세안+3 각국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련 유사 기구(기관) 사례조사
- 아세안+3 국내외 국제기구 설립과정, 절차, 재원조달 등 기존 사례분석
- 동남권 아세안+3 문화교류플랫폼(국제기구) 설립 관련 고려사항 도출
- 국제기구(기관) 기반 회원국 간 문화교류사업 및 민간분야 협력방안

## 과제

VI. 비대면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 1)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
- 2) 부산문화재단 대응 방안

## VI 비대면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 1)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

#### ① 추진배경

- 예술시장 성장 정체 및 예술 활동 여건 속 코로나 확산은 대면공연·전시 등 예술활동을 상당 부분 제약하여 어려움이 가중
  - 정부는 어려운 예술계를 위해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용자, 창작준비금 지급, 대규모 일자리 지원 등 예술인 생계지원 중점 추진
- 고정된 틀이나 관성에서 벗어나 비대면 예술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실험과 탐색 지원을 확대하여, 생태계 지속방안 마련 필요
  - 예술은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환경에서 전면적이고 급속한 생태계 변화 흐름에 직면, 새로운 예술 탄생 예측
  - 세계 예술시장은 자본력 있는 기업·단체 중심으로 실감기술 활용 새로운 온라인 사업 모델 시도하여 신시장 개척
- 세계는 이제 '선례' 없는 시대, 스스로 새로운 모델 만들어야 하는 국면
  -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초예술 분야의 온라인 확장에 선제적으로 대응, 집중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기반 조성 필요

#### ② 현황과 진단

##### 1. 대면 예술 생태계 지원현황

- (예술인 생계 안정) 긴급생활자금 용자 신설 및 창작준비금 우선 지원
  - (긴급생활자금 용자)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용자 7억원 규모 신설, 용자 지원 선행요건인 예술활동증명 시 취소된 공연도 실적 인정
  -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1인당 300만원 창작준비금 지원 시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에게 우선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고용보험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제도실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
- (창작·운영 지원) 자금·일자리 지원 등을 통한 예술 생태계 정상화 추진
  - (공연 제작비용) 공연장 대관료(40억원, 800건), 공연 초연·재공연(56억원, 110여건/20~200백만원 차등지원)
  - (공연·전시공간 유지) 특성화 극장(40억원, 200개소) 및 전시공간(9억원, 280개소) 운영 등 지원
  - (일자리) 공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등 지원 강화, 공공미술 프로젝트(추경 759억원, 8,500명), 공연예술 현장인력(3,000명) 및 공연장 방역(500명) 일자리 지원(추경 319억원)
- (평가 및 보완) 최근 코로나 재확산 및 일상화로 대면 공연·전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 예술활동 지속을 위한 지원방안 필요

### 2. 문제점 및 대응방향

- (비대면 예술 콘텐츠 부족) 공익 또는 홍보 목적 무료 콘텐츠가 대부분, 소비를 유인할 매력적인 콘텐츠 절대 부족
  - 영세한 사업체 또는 자영 예술인이 대다수,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새로운 예술 콘텐츠 개발 여력 부족
- (유통시장 형성 미진) 미술품 등 실물 거래 가능한 일부 영역 제외하면 온라인 유통 생태계 형성기로 낮은 온라인 접근성 문제
- (비대면 환경 대응 준비 미흡) 온라인 창작·유통을 위한 예술분야 종사자와 기업의 기술 역량 및 관련 경험 부족
- (예술의 힘이 필요한 시대) 개인이 느끼는 고립감 등 코로나 우울 극복이 필요한 상황, 예술을 통한 정서적 치유 등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필요

#### ③ 비대면 예술 지원 추진방향

- (창작) 비대면 예술 콘텐츠 부족 → 다양한 실험·탐색 지원
- (유통) 온라인 시장 형성 미진 → 온라인 예술 유통기반 구축
- (일자리) 환경 변화 대응 한계 → 비대면 일자리·기업 적극 육성
- (향유) 일상적 위기 지속 → 예술의 사회적 역할 및 향유 기반 확대

#### ④ 중점 추진과제

##### 1. 다양한 실험 지원으로 새로운 예술 성장 유도

-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실험 지원
  -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온라인·미디어 예술 활동 신규 지원
    - ▶ (활동지원) 초기 적응 및 전환 지원을 위한 씨앗 뿌리기, 다양한 실험 활동을 폭넓게 지원
    - ▶ (교육·컨설팅) 온라인 활동 방식, 저작권 이해도 제고 프로그램 제공
    - ▶ (기반연구) 온라인 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평가·모니터링 지표 개발
- 다원예술 신규 지원 및 창작활동 과정 전반 지원
  - (장르융합·거리예술) 전통적인 예술 구분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에서 소외된 소수 장르 예술가의 기획·창작 지원
  - (청년예술가) 아이디어 구체화·발전, 사전연구, 제작·발표 등 지원, 우수작품 제작을 위한 멘토링 추가지원
  - (창작실험 활동 지원) 실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구체화, 중간 발표 등 본 공연 이전 창작과정 지원

### ●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확대

- 4차산업 핵심기술(빅데이터·5G·AI 등)과 예술적 상상력 융합 활성화
  - ▶ (예술+기술 제작지원) 아이디어 기획(50건) → 구현기술 개발(20건) → 창·제작(10건)
    - 성과공유회 등 단계별 지원('20년 21억원 → '21년 32억원)
  - ▶ (기술개발)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5G)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개발' 신규 추진('21년안, 52억원)
- 예술·기술 융합형 인재 양성
  - ▶ (예술·과학 융합 인력양성) 문화예술단체와 대학·연구소의 융합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현장형 인재 양성 ('20년 9억원 → '21년안 13억원)
  - ▶ (예술대학 역할 강화) 융합형 예술 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 변화 주도
  - ▶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20년 2개 초등학교), 지역 기반 예술영재교육원(초4~고3) 신규운영('20년 27억원, 세종, 경남 통영)

## 2. 온라인 기반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예술

### ● 온라인 공연 성공 본보기(모델) 창출

- 국립 공연장 및 국립 예술단체의 비대면 공연 선도
  - ▶ 공연예술 생태계 상생을 위해 공공부문(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국립극단) 공연 영상화 선도적 추진 및 성공모델 확산
  - ▶ 국내 주요 영상 플랫폼 협력 통해 공연예술 영상 시장의 수익모델 탐색, 시장 창출 지원

### ● 온라인 공연 노하우 공유 등 정보제공 강화

- (사례 공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시행한 다양한 온라인·비대면 공연 프로젝트 사례집 제작·배포, 제작 현장 견학
- (기반조성)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참여 인력(배우·무대기술인력 등)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마련 검토

### ● 민간 공연단체 온라인 공연 제작 및 인프라 지원

- (공연영상 제작지원) 고품질 공연영상 촬영·편집·후반작업 지원('21년안 12편 신규), 온라인 생중계 지원('21년안 15억원, 60편) 등
- (공연 영상화 종합 스튜디오) 예술의 전당 내 인프라 조성하여 소규모 민간 공연 대관 및 촬영·생중계 지원('21년안, 32억원)
-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온라인 중계시설, 장애 유형별 맞춤형 가변적 공간 설계로 무장애 문화예술 공간 마련 ('21년안, 84억원)

### ● 모태펀드 문화계정 등 공연예술 투자 활성화

- (선택과 집중) 창작뮤지컬 등 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우선 추진, 문예기금 창작 지원 공연의 투자유치 연계 지원
- (인식개선) 투자 유치 교육 및 컨설팅, 예술기업의 재무·회계 역량 강화
- (정보제공) 모태펀드 투자조합 대상 공연 쇼케이스 일정 등 공연 제작 관련 정보 계기별 제공(벤처투자 협조, '21~) 등 활성화

## 3. 온라인·비대면 유통 및 해외진출 활성화

### ● [미술] 작가·작품에 대한 체계적인 온라인 홍보·마케팅 강화

- (현대미술 한류 프로젝트) 한국 현대미술 작가 발굴 및 창작지원, 작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 한류 플랫폼화
- (재외 문화원 예술한류 거점화) 미디어예술 콘텐츠, 한류 홍보 영상 등 상영 가능한 상시형·이벤트형 미디어예술 시설 구축·운영('21년안, 100억원)
- (민간 플랫폼 활용 판로개척) 미술·공예 작품 유통·해외진출 지원
- (실태조사) 미술품 대여, 온라인 전시, 미술품 공동 소유·투자 등 미술 유통 생태계 실태조사 확대 추진 ('20년 1억원 → '21년 2억원)

### ● [공연] 기존 국내·외 공연유통 플랫폼을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

- (서울아트마켓) 이용자 간 쌍방향 소통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공연 소개 및 상담 지원
-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지역문화회관과 공연예술단체 간 온라인 교류시장(아트마켓) 운영, 온라인 기반 국내 공연 유통망 구축
- (대형 한류공연 개발) 국악+영화·애니메이션, 국악+뮤지컬, 국악+양악 등 전통·현대, 동·서양이 어우러진 고품격 작품 개발 및 공연('21년안, 16억원)

### ● [문학] 문학한류 집중지원 위한 온라인 플랫폼·콘텐츠 다변화

- (현지 출판사 문학 출판 지원) 한국문학 저작권 수입 출판사 대상 한국문학 번역·출판 지원, 언어권 확대 등 다변화
- (해외진출 온라인 지원) 국내 출판사 출간작 홍보물 등록 및 저작권 거래 상담을 위한 상시운영 온라인 플랫폼 구축('20~)
- (다양한 콘텐츠 활용) 한국문학 해외소개 영상 시리즈물 제작, 해외출간 한국문학 서평단 운영(7개 언어권, '20년), 해외 현지 유튜버 대상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 개최('21년안, 3억원)
- (번역가 양성) 소수언어권(아랍어, 이탈리아어 등) 단기과정 신설, 코로나 대응 온라인 강의 추진('20년) 및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 추진

#### 4. 미래 일자리 및 혁신기업 육성으로 생태계 대응력 강화

##### ● 비대면 예술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 비대면·온라인 예술 일자리 발굴·성장 지원
  - ▶ (공연·미술 작품 디지털화) 뮤지컬·연극 등 공연예술 기업 및 회랑 등 미술 유통기업 대상 온라인·디지털 청년 일자리 지원
  - ▶ (예술자료 수집·정리·디지털화) 공연대본·미술도록, 문학관 소장품 등 실물 예술자료 디지털화 일자리 지원
  - ▶ (신직업 정보) 비대면 환경의 새로운 직업군, 대표 인물 인터뷰, 직무, 경력개발 경로 등 관련 내용 소개서 제작·배포
- 비대면 환경 속 예술분야 취업 탐색 및 연계 지원
  - ▶ (장애예술인 취업 지원) 민간기업의 장애예술단 창단지원 및 민간기업과 장애예술인 협업 프로젝트 지원 (21년안, 120명, 7억원)
  - ▶ (온라인 취업지원) 예술분야 일자리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 누리집 구축, 맞춤형 컨설팅 및 구인·구직 매칭지원(21.2~)

##### ● 혁신 예술기업 육성 및 종사자 역량 강화

- 예술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 성장단계별 지원 확대
-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조직 전환 지원 및 역량강화
  - ▶ (조직전환 지원) 예술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예술단체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형태 창업 및 전환 지원(20년 10개)
  - ▶ (사회성과 평가) 문화예술 사회성과 측정 지표 활용, 지원기업의 사회성과 목표 설계
    -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 보상 시범추진
- 예술기관·단체 종사자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 (온라인 강의) 예술경영 및 예술인 권익보호 등 기초 교육콘텐츠 제공
  - ▶ (분야별 맞춤형 교육) 예술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역량진단 척도개발, 희망진로별 디지털·온라인교육 신설, 서비스 제공 통합 플랫폼 운영(21년 신규, 10억원, 35개 과정)

#### 5. 비대면 예술 향유기반 확대로 예술 성장의 토양 마련

#####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온라인·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21년~, 20억원, 40여개)
  - ▶ (학교교육 연계) 예술특성(체험, 상호교감) 살린 예술교과(음악, 미술, 무용 등) 연계 및 범교과 주제 중심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 (사회 수요 대응) 감상교육형, 꾸러미활용형, 음성기반형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온라인 방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의 온라인 접근성 제고
  - ▶ (신규 개발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통합정보시스템(아르떼 라이브러리, 자원지도 등), 평생교육 플랫폼(K-MOOC 등) 연계 서비스 제공
  - ▶ (자원지도 서비스) 자원 조사 및 디지털화
    - 데이터 검증 및 사용자 위치기반 지도 서비스 구축
    - 문화예술교육 시설, 교육·행사·단체 등 맞춤형 정보 제공

##### ● 비대면 온라인 국제 문화교류 활성화

- (온라인 국제 문화교류) 교류사업 온라인 전환 및 신규사업 발굴 검토
- (코로나19 대응 협력) 국제 문화장관회의 및 양국간 고위급 회의 시 문화예술계 지원정책 등 코로나19 대응사례 공유 및 문화방역 소개

##### ● 예술을 통한 치유 및 예술의 가치 공론화

-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문화예술 활용 정서적 치유 등 심리방역
- (전문가 포럼) 예술계 위기 대응, 새로운 예술정책 모색을 위해 관계기관 공동주관 '예술포럼'
  - ▶ '예술의 가치와 미래' 개최 지속(20.7~12월, 7회)
- (사회관계망 캠페인) 회전문 관객, 미술작품 수집가 등 예술 애호가 대상 "내 인생에 예술이란?" 사회관계망 캠페인 추진(21~)



## 2) 부산문화재단 대응 방안

### ① 정책 수혜 가능 대상사업 분석 및 대응

-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실험 지원
  - 온라인, 뉴미디어 지원 사업비 지속적 확보 통한 지역의 온라인·뉴미디어 창작 생태계 조성
    - 직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위한 전문교육 실시 통해 재단의 데이터 창고 역할 전담 지정
  - 장르융합·거리예술에 강점을 가진 부산의 문화환경을 활용하여 소수 장르 예술가의 기획·창작 지원 선도적 실시
  - 부산 장르융합·거리예술 종합계획 수립

### ② 4차산업 핵심기술(빅데이터·5G·AI 등)과 예술적 상상력 융합 활성화

- 부산문화재단의 정형, 비정형 자료의 빅데이터화를 통한 정책, 제도, 사업 실시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효율화 제도” 시범 도입
- 4차산업 핵심기술 활용의 목적을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라는 측면으로 설정하여 애드보커시의 도구로 사용

### ③ 예술자료 수집·정리·디지털화 일자리 지원 사업

- 광역문화재단 중 대표적으로 문화예술 아카이브, 정책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문화재단 수혜 가능
- 부산문화예술 빅데이터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원년의 해로 설정(2021년)

### ④ 온라인·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 부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문화공유 플랫폼 능력 어필 통한 지원 확보
- 부산형 온라인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및 브랜딩 강화

### ⑤ 장애예술인 취업 지원 사업

- 문체부 시범 사업 최초 실시로 장애문화예술사업 관련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문화재단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질 수 있는 분야로 판단되며, 예술인 취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 장애문화예술사업 중 장애 예술인의 비대면 환경 속 예술분야 창작 및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프로그램 개발

## VII. 부산형 메세나 활성화 방안

요약 I

요약 II

- 1) 부산형 메세나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배경
- 2) 성과와 한계
- 3) 부산형 메세나 추진 전략
- 4) 주요 과제
- 5) 선결 과제

## VII 부산형 메세나 활성화 방안

### ◆ 요약 I

#### 1 그간 메세나 성과와 한계

성 과	한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 '메세나 활성화 지원 사업' 지난 10년간 총 41억 기부금 조성</li> <li>BNK부산은행, 고려제강, 비엔그룹 등 메세나 선도 기업 활약</li> <li>현금 외 다양한 문화자원 매칭 시도 예) 공유문화플랫폼365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세나 활동 수도권·대기업·일회성 편중</li> <li>지역 사회 문제 해결 위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미흡</li> <li>다양한 문화 자원(공간, 기술, 재능 기부 등) 단편적 관리</li> <li>부산 메세나 자원 유치 → 개발 → 관리 총괄할 전담 기관 부재</li> </ul>

#### 2 부산형 메세나 추진 전략

**기업과 예술이 함께 부산문화 업그레이드!**

핵심 가치	협력	공유	확산
추진 과제	<b>U</b> (Unite, 연합)	기업-문화기관-부산시 메세나 협의체 구성	
	<b>P</b> (Problem-Solving, 문제 해결)	문화예술로 부산 사회문제 해결 협력	
	<b>G</b> (Growth, 성장)	문화예술인(단체) 발굴 및 성장 지원	
	<b>R</b> (Responsibility, 책임)	현금-공간-기술 등 예술 후원 방식 다각화	
	<b>A</b> (Archiving, 아카이빙)	문화자원 조사 및 아카이빙	
	<b>D</b> (Donation platform, 기부 플랫폼)	온·오프라인 문화예술 기부 플랫폼 구축	
	<b>E</b> (Extension, 확대)	기업 예우 프로그램 확대로 메세나 인식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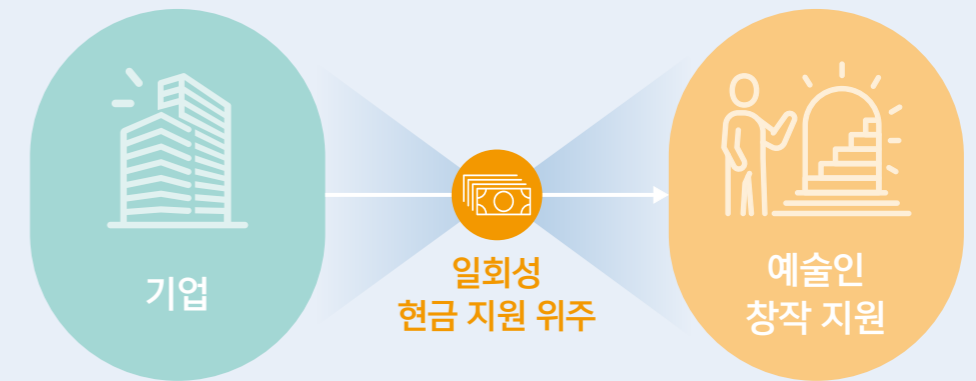
#### 3 성과 목표('25년)

협력 기업수	26개('19년) → 70개 이상('25년)	기부 성과	('25년 기준) 기부금 10억, 공간 5곳, 기술후원 20기업 등
--------	--------------------------	-------	---------------------------------------

### ◆ 요약 II (부산형 메세나란)

#### 1 지금까지 메세나

- 상공인이 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일회성 금전적 형태로 지원



#### 2 부산형 메세나

- 상공인과 예술인이 시혜와 수혜가 아닌 상생-협력의 관계로 문화예술 후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파트너십을 말합니다



**결과**

**기업과 예술이 함께 부산 업그레이드!!**



## 1) 부산형 메세나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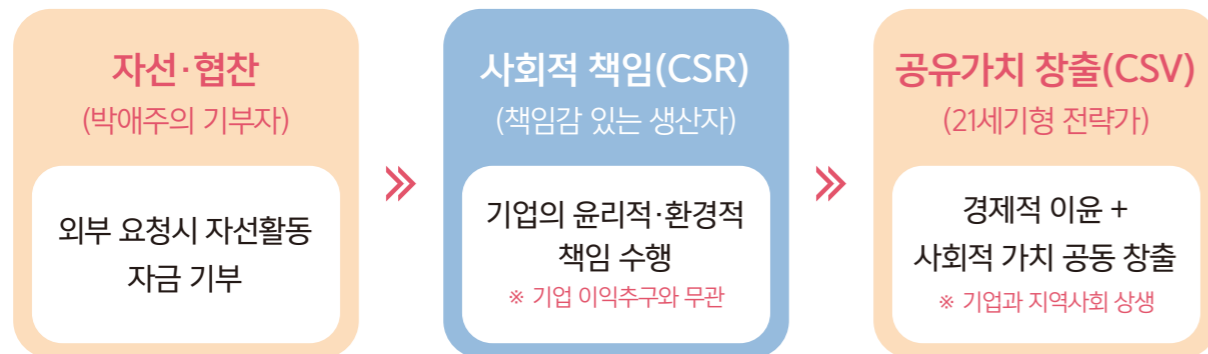
### ◆ 부산형 메세나

상공인과 예술인이 시혜와 수혜가 아닌 상생-협력의 관계로 문화예술후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파트너십을 말함

### 1 검토 배경

- 일방향 현금 지원에서 상생(win-win)방식으로 메세나 패러다임 변화
  - 기업 경영전략으로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및 사회 공헌 강화
  - 현금 외 공간, 현물, 경영 노하우 등 다양한 문화 자원 공유 추세
- 문화예술분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원 다각화 필요
  - 지속가능 도시 발전과 4차 산업혁명 도래로 문화예술의 역할 증대
  - 반면, 경기침체와 저성장 고착화로 市재정 및 문화공공기관 자체수입 감소
- 기업과 예술, 기업과 지역을 잇는 '문화 가교' 역할 중요
  - 문화예술 후원이 복지·교육 등에 비해 시급성이 낮다는 인식 높음<sup>21)</sup>
  - 기업 경영과 예술 가치에 부합한 콘텐츠 개발과 장기 전략 구축 전담 기관 필요

<그림 16> 기업 사회공헌의 진화<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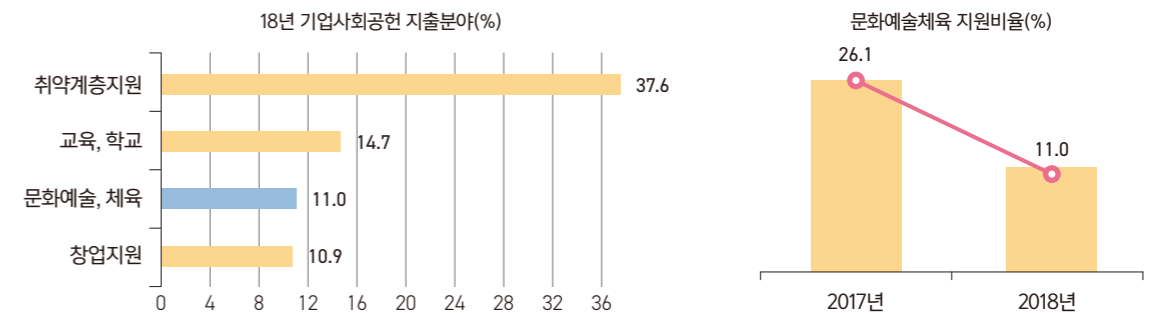
21) 기업 문화예술 사회공헌 효과 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6)

22) 김소영, 21세기형 메세나 '문화마케팅' KOREAN CULTURE & ARTS JOURNAL | January 2006, 삼성뉴스룸(2018.2.21일자) 등 참조해 구조화

## 2 여건 분석

- (기업 사회공헌 지출) 문화예술·체육 분야 기업 사회공헌 감소
  - 문화예술·체육 지출 '17년 21.6% → '18년 11%<sup>23)</sup>
  - 반면 취약계층 '17년 31.3% → '18년 37.6%, 창업 '17년 0% → '18년 10.9%로 증가

<그림 17> 18년 사회공헌 지출 현황



### 분석

창작 중심 예술 지원 감소,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증가

- (법·제도) 기부 및 문화접대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19년) 되었으나 제도 모르는 기업 86.8%에 달함<sup>24)</sup>
  -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확대, 소액 미술품 구입 비용 손금산입 조항 신설 등
  - 그러나, 문화접대비 제도 알고 있는 기업 불과 13.2%이며, 인지한 기업 중 활용하지 않는 기업도 87.1%에 달함 (1,000개 기업 대상 조사, 한국메세나협회)

### 분석

문화접대 홍보 부족, 활용 방안 다각화 모색 필요

- (문예진흥기금 기부금) 사회통합·신진예술가육성·순수 창작지원·지역살리기 4개 분야 기부금 지원 사업 운영<sup>25)</sup>
  - '12년부터 전액 지원목적이 뚜렷한 조건부 기부금 형태 ('19년, 306억대)

### 분석

보편적 예술 기부 탈피, 목적형 지원 사업 증가세

- (지역 조직) 상공계 주도 (사)부산메세나협회 발족 예정('20년, 4월)
  -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50여개) 참여, 문화예술 후원매개 역할 수행
  - 부산 메세나활성화 MOU 체결(문화재단, 상공회의소, 경총) 예정

23) 2019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전국경제인연합회, 2019)

24) 매일경제, 2019. 12. 15일자 '몰라서 못하고, 알아도 안한다...문화접대 기업 1.7% 뿐' 기사

25)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근거 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성·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금으로 재원조성은 모금, 정부출연금, 공익자금, 기부금으로 이루어짐

## 2) 성과와 한계

### 1 성과

- 부산문화재단 ‘메세나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 지난 10년간 총 4,112,264천원 기부금 후원('10-'19년)
  - 총 322개 예술단체 지원, 연간 평균 30개 기업 참여
    - ▶ 부산 메세나진흥원 설립('07년) → 부산시 메세나 원년 선포('08년) → 재단 사업 시행('10년)

<그림 18> 10년간 메세나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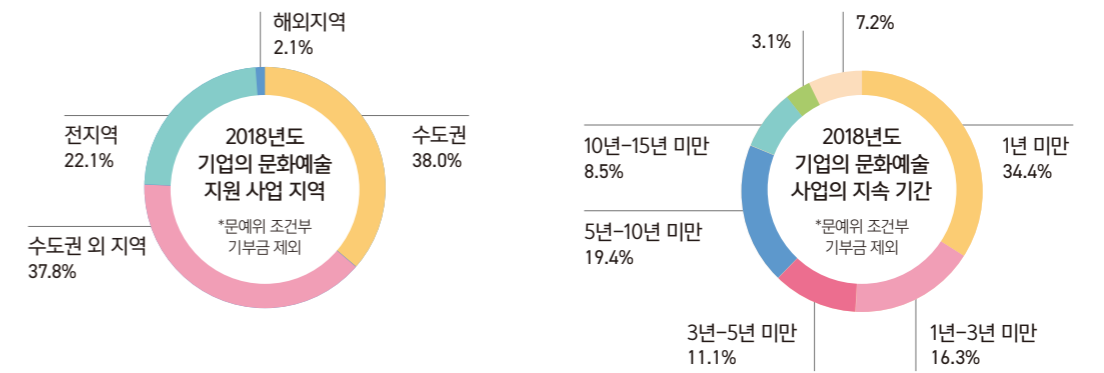


- BNK부산은행, 고려제강, 비엔그룹 등 메세나 선도 기업 활약
  - BNK부산은행 '제20회 메세나 대상('19년)' 수상
  - 고려제강 후원 F1963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18년)' 수상
  - 비엔그룹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16년)' 수상
- 현금 기부금 외 다양한 문화자원(공간, 매체 등) 매칭 시도
  - (조례) '부산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11년)' 전국 최초 제정
  - 공유문화플랫폼365 운영, 빈집 활용 창작공간 반딧불이 사업 추진 등
  -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 사업 '굿모닝 예술인' 20개 기업 참여('19년)
- 시설 기반 공공 문화기관 후원회 조직 운영
  - 부산문화회관 후원회 '18년도 창립, 회원수 73명, 누적 모금액 110백만 원
  - 부산시립(현대)미술관 후원회 '16년도 창립, 회원수 53명, 누적 모금액 61백만 원

### 2 한계

- 메세나 활동 수도권·대기업·일회성 편중
  - 기업 문화예술 지원 사업 지역 중 수도권 38%로 가장 높은 비율 차지
  - 대기업 지원 상위 20개 회사가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 점유
  - 기업 문화예술 지원 사업 약 50%가 3년 미만 신규 사업에 집중

<그림 19> 2018년도 메세나 수도권·지원 기간 비율<sup>26)</sup>



개선점 — 지역 현황에 맞는 메세나 추진 계획 수립

- 지역 사회문제 해결 위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미흡
  - 사회공헌 시 지역사회 당면 문제해결 및 발전 기여도 우선 고려
  - 반면, '19년까지 부산 메세나 활성화 지원 사업 전액 예술인 창작 지원 목적

<그림 20>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시 주요 고려사항<sup>27)</sup>



개선점 —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예술 콘텐츠 중점 개발

<sup>26)</sup> 한국메세나협회 2018년도 연차보고서(한국메세나협회, 2019)

<sup>27)</sup> 2019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전국경제인연합회, 2019)

- 다양한 문화 자원(공간, 기술, 재능 기부 등) 단편적 관리
  - '11-'18년 공간기부뱅크, '13-'14년 예술영재 프로젝트 추진 후 종료
  - '14년 예술인 재능 기부 천사의 날개 추진 후 종료
  - '15-'17년 달려라 피아노(피아노 기부) 종료



**개선점** — 지속적인 통합적인 문화자원 공유 체계 구축

- 부산 메세나 자원 유치 → 개발 → 관리 총괄 할 전담 기관 부재
  - 문화예술계와 기업간 협력 체계 구축과 상호 교류의 장 연계 미흡
  - 메세나 활동 기업에 대한 다양한 예우 프로그램 개발 부진
  - 기업과 예술단체의 목적을 매칭하고 성과 분석 활동 필요

**| 메세나 조직 구성 현황 |**

- ① 메세나협회
  - 한국메세나협회('94년), 경남메세나협회('07년), 제주메세나협회('15년), 대구메세나협의회('16년)
-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후원센터 운영, 예술나무 운동 등 총괄
- ③ 서울문화재단 메세나팀 운영 ※16개 광역문화재단 중 유일
  - '19년 문화재단 최초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공식 인증
  - 서울 메세나 얼라이언스, 아트살롱, 후원행사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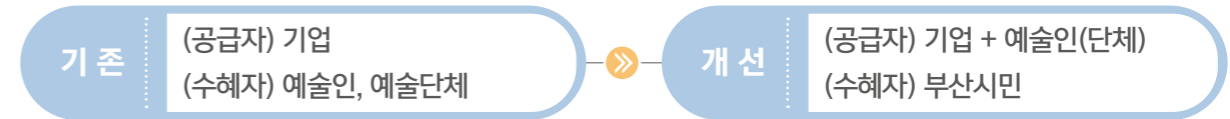
**개선점** — 문화재단 내 전담 인력 배치, 기업-예술인 간 협력 매개

### 3) 부산형 메세나 추진 전략

#### 1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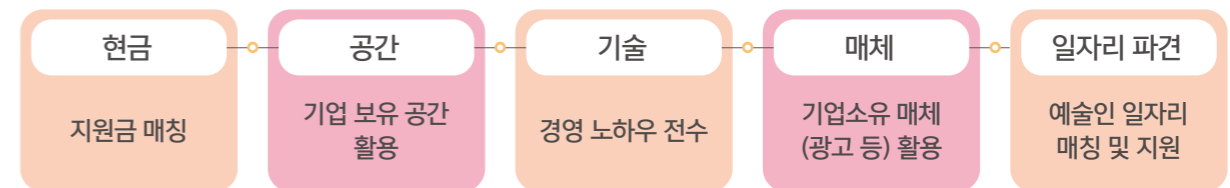
- 기업과 예술인이 함께 지역문제 해결하는 문화공헌 확대
  - (기존) 기업이 예술인(단체) 대상 자선적 성격 기부 다수
  - (개선) 기업과 예술인(단체)가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확대

<그림 2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공헌 공급자, 수혜자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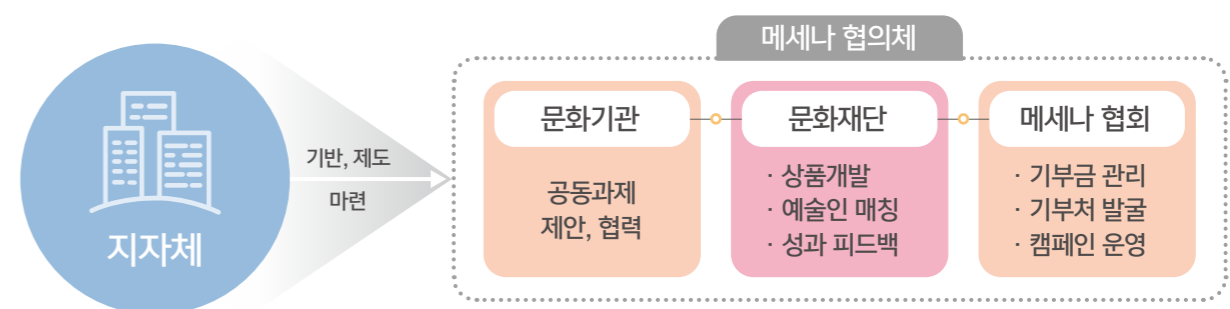
- 다양한 문화 자원 공유로 예술 생태계 개선 도모
  - (기존) 현금 기부 형태 메세나 사업 위주 운영
  - (개선) 공간-기술-매체-일자리 파견형 메세나로 다각화

<그림 22> 부산형 메세나 5대 기부 카테고리



- 기업-재단-지자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기부 문화 확산
  - (기존) 중·장기 계획과 컨트롤 타워 부재, 일회성 행사 중심 운영
  - (개선) 재단 내 전담인력 배치, 기업(메세나협회)-재단-지자체 협의체 구성

<그림 23> 부산형 메세나 협력 체계



2 추진 전략

| 목 표 |

기업과 예술이 함께 부산문화 업그레이드!

| 전 략 |

부산형 문화예술 메세나 모델 구축

| 핵심 가치 |

협력

공유

확산

1 (협력 메세나) 문화공헌 확대로 사회 혁신 도모

U

(Unite, 연합)

기업-문화기관-부산시 메세나 협의체 구성

P

(Problem-Solving, 문제 해결)

문화예술로 부산 사회문제 해결 협력

G

(Growth, 성장)

문화예술인(단체) 발굴 및 성장 지원

2 (공유 메세나) 문화자원 공유로 예술 생태계 개선

R

(Responsibility, 책임)

현금-공간-기술 등 예술 후원 방식 다각화

A

(Archiving, 아카이빙)

문화자원 조사 및 아카이빙

3 (확산 메세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기부 문화 확산

D

(Donation platform, 기부 플랫폼)

온·오프라인 문화예술 기부 플랫폼 구축

E

(Extension, 확대)

기업 예우 프로그램 확대로 메세나 인식 확산

| 추진 과제 |

4) 주요 과제

전략 1 - (협력 메세나) 문화공헌 확대로 사회 혁신 도모

1-1. 기업-문화기관-부산시 메세나 협의체 구성

- ◆ 부산형 메세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업-문화기관(재단 등)-지자체간 협의체 구축으로 기부 활성화 기반 마련 및 공동과제 수행

● 주요 내용

(1) 문화예술 메세나 협의체 구성

- 기업, 부산시, 문화유관기관, 메세나 협회 등 협력

| 문화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협력사항(예) |

- ▶ 문화재단-문화기관-영화의전당-시립(현대)미술관, 박물관 참여
- ▶ 문화예술 후원 관련 공동 협력 과제 발굴 후원 기업 대상 교육 및 메세나 혜택 마련 등

(2) (사)부산메세나협회 발족 후 중앙·광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

- (사)부산메세나협회 발족('20년, 4월)
- 한국메세나협회, 지역메세나협회(경남, 제주) 등과 공동 사업 및 포럼 개최 등

| 한국예술위원회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 |

- ▶ 광역문화재단, 민간재단, 기업 참여 예술지원 협력 네트워크
- ▶ 민간 협력 사례 발굴 및 프로젝트 수행



(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제정

- (가칭)'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제정 ('20년 하반기 시행)
- (내용) 기부 활성화 계획수립, 경비 지원 사항, 조세 감면 등

| 문화예술후원 관련 법률 현황 |

-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14년)
- ▶ 경상북도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조례('16년), 경기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17년)

● 연차별 목표 및 소요예산

세부사업	2020	~2022	~2025	소요예산
① 문화예술 메세나 협의체 구성	50개 기업 참여	70개 기업	100개 기업	10백만 원
② 중앙·광역 협의체 네트워크 구축	부산메세나 협회 발족	중앙·광역 네트워크	공동과제 추진	
③ 조례 제정	제정	적용	적용	

1-2. 문화예술로 부산 사회문제 해결 협력

◆ 부산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술로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예술인이 함께 협력해 지역사회 변화를 도모하는 형태 ※ 부산 4대 사회문제 : 사회적 고립, 고령화, 도심 공동화, 해양 오염

● 주요 내용

- (1) 고독사 완화 '더불어 예술' 프로젝트 운영
  - 사회적으로 고립감이 심한 1인 가구 중점
  - 기업·재단·정신보건기관 협약해 심리적 안정과 고립감 해소 지원
- (2) 고령자 대상 '액터 닥터(Actor Doctor)' 추진
  - 치매 환자 및 장기 입원 환자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 예술을 건강 및 의학적 맥락에서 도입해 환자들의 창의적 표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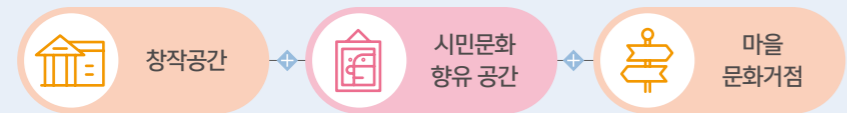
| (주)벽산엔지니어링과 함께하는 힐링 플레이 |

- ▶ 벽산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이 급여 1%를 자발적으로 기부
- ▶ '1% 벽산나눔매칭 운동' 중 하나로 예술가가 장기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술교육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



- (3) 도심 공동화 개선 빈집 활용 예술창작공간 '반딧불이 사업' 확대
  - 기업·기초자치체 등에서 기부 받은 빈집을 예술창작공간으로 조성
  - '20년 현재 15호점까지 운영, 서·북구청, 부산도시가스 등 공간 후원

| 반딧불이 8호점 '골목과 사람과 그리고 시' 행사 |



- (4) 해양 오염 완화 '업사이클링 아트' 추진
  - 부산 해양, 하천, 산 등 자연 환경 문제를 예술작업과 연계
  - 다양한 쓰레기를 재활용해 작품 및 상품으로 제작하는 활동 지원

| 청정 제주를 위한 ART Bin 프로젝트 |

- ▶ 제주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 분리수거통을 만들어 수거한 재활용품을 활용해 예술작품으로 재탄생
- ▶ '19년에는 김기대 작가의 상들리에가 '해녀의 부엌'에 설치



- (5) 우울감 완화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 국가재난, 사고, 실직 등에 따른 심리적 우울감을 예술을 통해 치유
  -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군, 범죄피해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추진
- (6) 기업-문화예술단체 공동 기획 취약계층 지원 문화행사 개최
  - 기업과 문화예술기관이 취약계층을 돕는 음악회·전시등 개최

| 사랑나눔 음악회 지원 |

- ▶ UKO 오케스트라 주관, 소아암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를 돕는 연주회 개최 (20백만 원)
- ▶ 스타자동차(주), 수창건설, 백병원 등 후원, 연주회 티켓판매 수익금 전액 기부 (난치병 어린이 돕기성금 5억원 전달)



- (7) 향토기업과 함께하는 '달리는 부산문화' 캠페인 운영
  - 기업과 문화예술기관이 취약계층을 돕는 음악회·전시등 개최

| 달리는 부산문화 |

- ▶ 부산문화재단이 보유한 이동형 무대차량을 이용
- ▶ '19년 : 지원형 13회, 기획형 13회, 차량지원 4회 추진 총 21개 기관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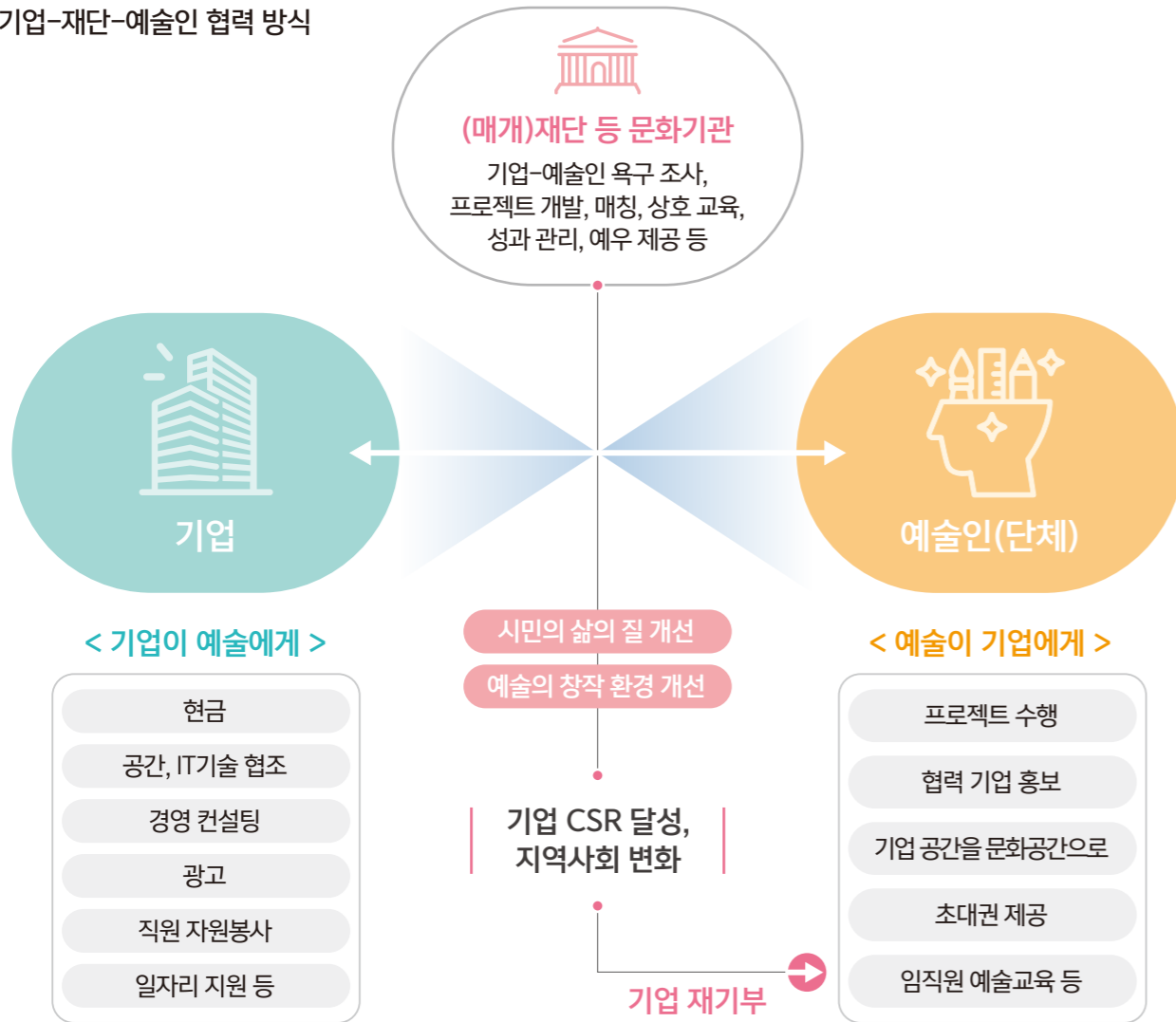
● 연차별 목표 및 소요예산

세부사업	2020	~2022	~2025	소요예산
① 고독사 완화 더불어 예술 운영	협약 체결	연 100가구	연 100가구	20백만 원
② 고령층 대상 액터닥터 추진	협약 체결	연 100명	연 100명	20백만 원
③ 도심공동화 반딧불이 확대	협약 체결	10개소	10개소	125백만 원
④ 해양 오염 완화 '업사이클링 아트' 추진	협약 체결	연 3개 단체	연 5개 단체	200백만 원
⑤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연 1회	연 5곳	연 5곳	33백만 원
⑥ 취약계층 지원 문화행사 개최	연 1회	연 2회	연 4회	35백만 원
⑦ 달리는 부산문화 캠페인 운영	연 5회	연 10회	연 15회	60백만 원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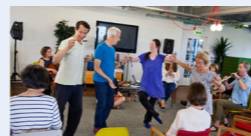
기업-재단-예술인 협력 방식



- 주요 사례 - 영국 '크리에이티드 아웃 오브 마인드' 기관
  - 웰컴 컬렉션<sup>28)</sup> 내 허브에서 진행되는 레지던시 기관
  - 60개가 넘는 기관, 연구소, 개인들이 협업해 예술가, 과학자, 치매환자들이 함께 치매에 대한 대중적, 전문적 인식을 확산하고 협력하고 다학제적 접근

| 영국 크리에이티드 아웃 오브 마인드(Created Out of Mind) |

- ▶ 벽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예술가, 과학자, 인문학자들 간의 협력 연구
- ▶ 치매 진단 후 그림 및 음악을 접한 이들의 뇌기능 변화사례 추적 등



28) 웰컴 컬렉션(Wellcome Collection) : 런던 유스톤 역에 위치한 의학전문 복합문화공간. 약사이자 기업가, 콜렉터였던 헨리 솔로몬 웰컴 경이 설립한 세계최대규모의 독립 자선재단 웰컴 트러스트(Wellcome Trust)에 의해 운영.

1-3. 문화예술인(단체) 발굴 및 성장 지원

- ◆ 지역 예술계를 이끌 예술 영재 및 신진 예술인 창작활동 후원과 문화예술을 활용한 창업·창직 기회 제공 위한 기업의 물적·인적 자원 매개

● 주요 내용

- (1) 예술 영재 발굴
  - 지역 내 예술 영재를 발굴 해 전문적 문화예술 교육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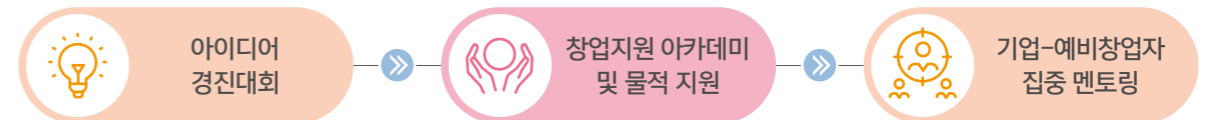
| 제주 메세나 예술영재 캠프 |

- ▶ 제주메세나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마사회 공동 주최
- ▶ 도내 예술영재 발굴을 목적으로 초등에서 중학생까지 참여



- (2) 신진 예술인 육성
  - 기간 기업의 신진 예술인 육성이 수도권 위주 집중
  - 지역 신진 예술인을 장르별 다양화 하고, 창작 필요 제반 자원 매칭
- (3)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예비창업자 대상
  - 선정 후 기업과 매칭 해 창업 컨설팅, 초기 비용(공간 등), 홍보 등 지원
- (4) 문화예술 창업 전담 멘토제 운영
  - 다양한 성공과 실패 경험을 가진 각 분야 기업인을 멘토로 참여

<그림 24> 기업의 문화예술 창업자 지원 체계



● 연차별 목표 및 소요예산

세부사업	2020	~2022	~2025	소요예산
① 예술 영재 발굴	계획 수립	연 1회	연 1회	40백만 원
② 신진 예술인 육성	계획 수립	연 2명	연 2명	40백만 원
③ 사회적 경제 창업 경진대회	창업 지원	연 20개 팀	연 30개 팀	연 20
④ 문화예술 창업 전담 멘토제 운영	계획	연 20개 회사	연 30개 회사	연 20

**전략 2 - (공유 메세나) 문화자원 공유로 예술 생태계 개선**

**2-1. 현금-공간-기술 등 예술 후원 방식 다각화**

◆ 기업의 기부금 위주 메세나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이 보유한 공간, 기술, 매체 등의 다양한 문화 자원을 활용해 메세나 활동

● 주요 내용

(1) 공간 후원형 메세나

- 기업이 보유한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예술인 창작공간, 시민 문화향유 공간,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
  - ▶ 기업 로비, 유휴공간에 공연, 전시, 행사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거점 공간 조성
  - ▶ 기업 창고를 개방하여 예술 창작에 필요한 대규모 무대소품 보관장으로 활용
- 기업과 연계, 공간기반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

| F1963 |

- ▶ 고려제강 옛 수영공장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 ▶ 문화공간 확대조성 중, 시민 문화아카데미 운영 예정(11월~)



| 예술지구P |

- ▶ 파낙스그룹의 사내 유휴공간을 재단장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 ▶ 예술인 창작공간(레지던스공간, 발표공간)으로 집중 운영



(2) 기술 후원형 메세나

- 예술단체를 경영하고 있는 기획자,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경영 노하우 전달 및 기업의 기술을 예술가와 협업해 시민에게 전달
  - ▶ IT 기업이 가진 기술을 창작 작품에 접목하여 새로운 예술 콘텐츠 개발
  - ▶ 홍보 마케팅 기업이 가지고 있는 홍보(마케팅) 노하우를 예술단체에게 전수
- 기업 보유기술을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여 예술창작과 접목하거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서경대학교 문화예술분야 기술 후원 창업 멘토링 |

- ▶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센터에서 문화예술산업 활동을 할 예비 창업 인재과 우수 기업 간 멘토링 추진 해 기술 후원



| 낙원상가+예술인 함께 하는 악기 기부 캠페인 |

- ▶ 시민-예술가가 기증한 악기를 낙원상가 상인이 재능기부로 무상 수리 및 조율
- ▶ 예술가는 플리마켓 및 공연으로 캠페인 참여
- ▶ 수리된 악기는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층 아동복지 기관 전달



(3) 매체 후원형 메세나

- 기업이 소유한 매체(광고 채널 등)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에 일조
  - ▶ (기업 제품) 기업 제품에 작가의 작품 이미지를 사용하여 작가가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판로 개척
  - ▶ (광고 지면) 언론사에서 광고 지면을 할애하여 공연, 전시, 행사 등을 무료로 홍보하거나 예술단체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BN그룹 |

- ▶ 대선주자가 생산하는 시원소주와 시원블루 보조라벨에 문화재단의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기원 문구 삽입



(4) 일자리 파견형 메세나

- 예술로 조직 내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에 예술인을 파견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예술적 협업 및 프로젝트 진행
- 예술인 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창의적 사고와 새로운 시각에 입각한 기업의 조직문화, 경영부문 개선
  - ▶ 2019년 : 20개기업, 예술인 파견 20명, 2018년 : 35개기업, 예술인 파견 40명

● 연차별 목표 및 소요예산

세부사업	2020	~2022	~2025	소요예산
① 공간 후원형 메세나	1건	연 2건 이상	연 2건 이상	비예산
② 기술 후원형 메세나	1건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비예산
③ 매체 후원형 메세나	협약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비예산
④ 일자리 파견형 메세나	85명	80명	80명	보조금 매칭

## 2-2. 문화자원 조사 및 아카이빙

- ◆ 부산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기록·조사 하며 그간 축적된 예술인(단체)의 업적을 기리는 아카이브 사업 등 추진 해 시민과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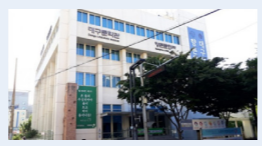
### ● 주요 내용

#### (1) 부산 문화 자료관 구축

- 부산의 음악·문학·건축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자료를 조사하고 기록해 보관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자료관 구축을 지원
- 기업과 함께 자료관 구축을 통해 기업 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 자료를 열람·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대구문학관 |

- ▶ 대구 최초의 일반은행인 선남상업은행 있던 자리 활용
- ▶ 시민과 문인들의 열린 공간으로 대구 문학계 자료를 수집·보관·관리 운영



#### (2) 원로 예술인 아카이빙

- 부산 대표 예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해 부산의 문화정체성을 형성해 온 원로예술인 (만 70세 이상) 작품 아카이빙 후원

#### (3) 도시 기록 예술 활동 지원

- 재개발로 사라지거나 잊혀지는 문화자원을 기록하고 시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

#### | 네이버 온라인 전시 후원 프로젝트 - 군산의 시간 |

- ▶ 군산을 지키고 있는 마을 원주민과 공간을 흑백사진으로 수집
- ▶ 네이버 그라폴리오나 오프라인 전시공간에서 작품 감상 지원



### ● 연차별 목표 및 소요예산

세부사업	2020	~2022	~2025	소요예산
① 부산 문화 자료관 구축	계획 수립	연 1회	연 1회	40백만 원
② 원로 예술인 아카이빙	계획 수립	연 1명	연 1명	40백만 원
③ 도시 기록 예술 활동 지원	계획 수립	연 3개 단체	연 3개 단체	60백만 원

## 전략 3 - (확산 메세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후원 문화 확산

### 3-1. 온·오프라인 문화 기부 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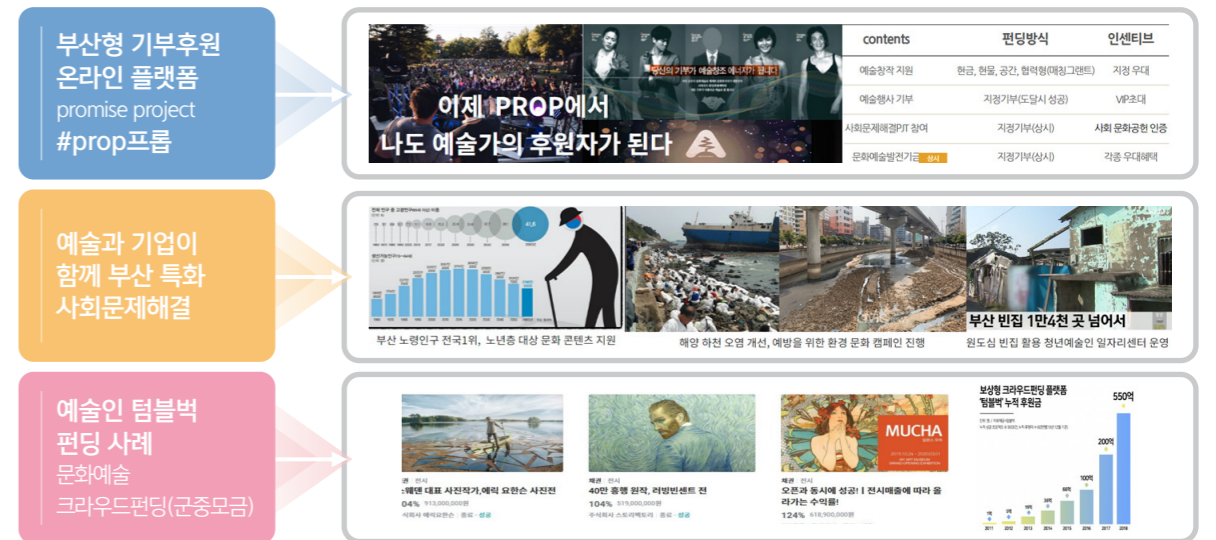
- ◆ 문화예술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기부 플랫폼 운영으로 부산형 메세나 브랜드 인지도 제고

### ● 주요 내용

#### (1) 온라인 기부 플랫폼 개설

- 부산 지역 현안에 맞는 스토리텔링형 기부 플랫폼 운영
- 시민 참여형 크라우드 펀딩<sup>29)</sup> 활성화 유도

<그림 25> 부산형 온라인 기부 플랫폼(안)



#### (2) 부산 출향 인사 문화예술 후원회 조직

- 부산 출향 인사 신년인사회를 통해 문화도시 부산 비전 공유
- 문화예술 분야 후원회 조직 해 메세나 참여 유도

### ● 연차별 목표 및 소요예산

세부사업	2020	~2022	~2025	소요예산
① 온라인 기부 플랫폼 개설	계획	홈페이지 오픈	운영	30백만 원
② 출향 인사 문화예술 후원회 조직	홍보	후원회 조직	운영	비예산

<sup>29)</sup> 소액 참여형 기부 방식으로 펀딩 플랫폼에 신청한 예술인의 프로젝트가 기부 목표 모금액을 달성할 경우 기부금에 재단 사업비 일부 매칭

### 3-2. 기업 예우 확대로 메세나 인식 확산

◆ 기업과 예술인의 메세나 중요성의 인식을 확산하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예우 프로그램 개선

#### ● 주요 내용

- (1) 세제 혜택
  - (세제) 기업의 예술분야 후원시 기부 영수 처리해 법인세 절감(8%)
  - (문화접대비)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추가 비용으로 인정
- (2)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 임직원 대상 기업에 부합한 공연, 예술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추진

#### | 활용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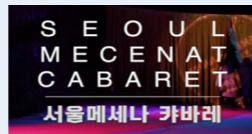
- ▶ 창립 기념식 등 회사 행사 축하 연주, 공연 관람 티켓 발송
- ▶ 임직원 가족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창의예술놀이터)
- ▶ 임직원 문화예술 강좌 및 사내 예술 동아리 코칭
- ▶ 디자인 관련 부서 예술가 협업 프로젝트 지원 등

#### (3) 부산 메세나의 밤 개최

- 기부자·기증자 인증패 제작 및 전달, 우수 기업 시상 등

#### | 서울문화재단 예술후원 감사의 밤 |

- ▶ 연간 참여한 기업, 예술인 초대
- ▶ 당해년도 메세나 사업 성과 공유 및 네트워킹



#### (4) 홍보 매체 활용 메세나 기업 소개

- 언론 보도 집중 배포, 재단 SNS 및 계간지에 사례 소개

#### ● 연차별 목표 및 소요예산

세부사업	2020	~2022	~2025	소요예산
① 세제 혜택	홍보	적용	적용	비예산
②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지원	개선	연 10곳	연 10곳	40백만 원
③ 부산 메세나의 밤 개최	계획	연 1회	연 1회	40백만 원
④ 메세나 기업 홍보	추진	연 4회 이상	연 4회 이상	비예산

### 5) 선결 과제

#### ① 부산문화재단 전담팀 구성

#### ● 주요 내용

- 기업메세나, 개인후원, 문화자원, 협력제휴 등 4개 분야별 역할 부여
- 기업 경우, 대기업-중견·중소기업-공기업-외국계 기업으로 분류 DB

<그림 26> 메세나 전담팀 업무 프로세스



#### ● 조직 구성(안)

- (1) 1안 : (가칭) 제휴·협력팀 신설
  - 기부, 제휴, 협찬 활성화와 프로젝트 총괄
  - 예술후원 캠페인, 공모, 기부심의위원회, 성과 관리, 후원의 밤 일체

#### | 예) 서울문화재단 메세나팀 |

- ▶ 직원 구성 : 팀장 1인, 직원 4인
- ▶ 기업별 분류 DB 구축, 서울메세나 얼라이언스 운영, 공모,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총괄 추진
- ▶ 성과 : 민관협력 우수기관 표창('20년), 출연기관 최초 2019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 (2) 2안 : 기존팀 재구조화+협력형 업무 네트워크 구성

- 기획홍보팀 : 메세나 사업 기본계획 수립, 메세나 협의체 등 대외 협력 네트워크 관리, 기부금 DB 구축, 후원의 밤 운영
  - ▶ 메세나 전담인력 증원 필수
- 기존 사업팀 : 메세나 사업 추진·성과 관리 담당(사회문제 관련 1팀, 예술지원 관련 1팀, 창업지원 관련 1팀 이상 업무 협력)
  - ▶ 타 기관 예시 : 대구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등

#### | 예) 대구문화재단 정책 홍보팀 |

- ▶ 직원 구성 : 팀장 1인, 직원 2인
- ▶ 메세나 기본 계획 수립, 대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기부금 심의위원회 간사, 기부관 관리 일체, 홍보물 제작 및 관리 등

## ② 市 지원 메세나 매칭 펀드 안정적 확보

- 기업 기부금 비례 해 부산시 매칭 펀드 지속 운영 필요
  - 연간 메세나 부산시 매칭 금 약 2억 7천만원('10-'19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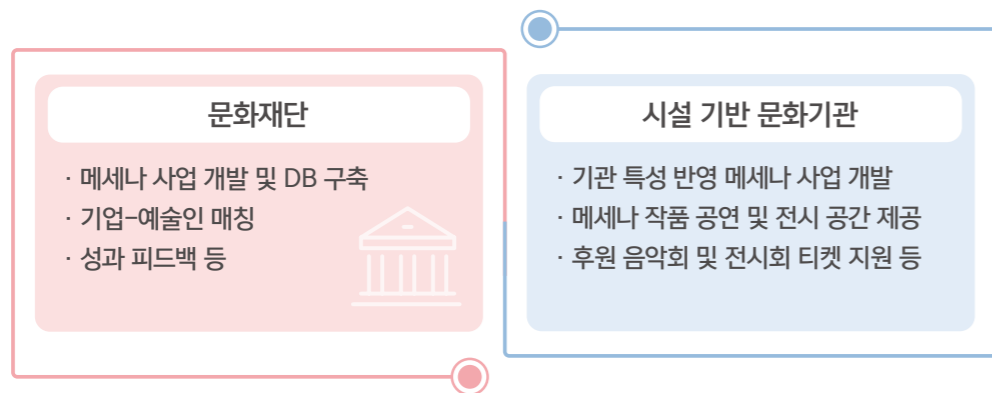
<표 7> 경남 메세나협회 기업-예술인 매칭 펀드 적용 내용

구분	매칭비율 (경상남도지원금 : 기업지원금)	기업지원금 기준	매칭 적용 예		
			경상남도 지원금(A)	경상남도 지원금(B)	합계(A+B : 예술 단체 예상 수혜금액)
1	1 : 1	5	5	5	10
2		10	10	10	20
3		15	15	15	30
4		15이상	펀드한도 15	15이상	30이상

## ③ 부산 문화 공공기관 적극적 참여 독려

- 부산 문화 공공기관(총 5곳)
  - 출연기관(예) : (재)부산문화재단, (재)부산문화회관, (재)영하의전당
  - 시 사업소(예) : 부산시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부산박물관
- 주요 역할
  - 부산 문화예술 메세나 협의체 참여, 예술기부 인식 제고
  - 당해·차년도 메세나 주요 공동과제 선정
  - 기관별 메세나 사업 추진 및 성과 공유

<그림 27> 부산문화재단-시설 기반 문화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 참고문헌

- 김화임(2016) 독일의 문화정책과 문화경영,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 부산문화재단(2020) 부산광역시 문화지표조사, 부산문화재단
- 부산문화재단(2021) 문화정책이슈페이퍼 8~12호, 부산문화재단
- (사)한국예술경영연구소, 한국문화정책연구소(2012), 국립공연장시설 재배치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조정운(2016) 대규모 공연장 건설 경향과 효과. 문화예술지식DB 문화돋보기 제35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